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한국중동부유럽학회 **2024년 겨울 학술대회**

동유럽 융합공간의 등장과 의미

역사적 배경과 향후 전망

| 일시 |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13:30-17:00

| 장소 | https://hufs.webex.com/meet/eebi

| 주최 | 동유럽발칸연구소(인문사회연구소 사업단), 한국중동부유럽학회

| 후원 | 한국연구재단





이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140)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한국중동부유럽학회 **2024년 겨울 학술대회**

동유럽 융합공간의 등장과 의미 -역사적 배경과 향후 전망-

13:30-14:00 **개 회 식**

- 개회사 **김상헌** (동유럽발칸연구소 소장)
- 축 사 **황성우** (한국중동부유럽학회 회장)

13:30-15:20 **기획주제 1. "체제 전환과 국제적 시사점: 동유럽에서 한반도로"**

진행 **이상동**

- 발 표 **대전환기의 루마니아 외교정책과 한반도에의 함의**
  김정환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 표 **루마니아의 체제 전환과 유럽 통합 전환이 한반도 상황에 주는 시사점**
  엄태현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 표 The Role and Activity of Romanian Elites in the First Steps of the Transition Towards Democracy
  Cristina Preutu (Associate Professor Cristina Preutu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lexandru Ioan Cuza University of Iasi)
- 토 론 **참석자 자유토론**

15:40-16:50 **기획주제 2. "문화적 전환과 정체성 형성: 동유럽의 경험과 한반도의 미래"**

진행 **엄태현**

- 발 표 **슬로베니아 사회·문화적 전환과 인식의 재구축:**
  통일 한국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고찰
  권혁재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 표 **헝가리 대전환 경험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문화지체와**
  사회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상동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 표 **유럽 통합을 위한 과정: 전쟁의 불길 속 새로운 우크라이나 정체성의 형성**
  홍석우 (한국외국어대학교)
- 토 론 **참석자 자유토론**

16:50-17:00 **폐 회 식**

목 차

■ 기획주제 1. “체제 전환과 국제적 시사점: 동유럽에서 한반도로”

7 • 발 표 **대전환기의 루마니아 외교정책과 한반도에의 함의**
김정환 (한국외국어대학교)

19 • 발 표 **루마니아의 체제 전환과 유럽 통합 전환이 한반도 상황에 주는 시사점**
엄태현 (한국외국어대학교)

37 • 발 표 **The Role and Activity of Romanian Elites in the First Steps of the Transition Towards Democracy**
Cristina Preutu (Associate Professor Cristina Preutu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lexandru Ioan Cuza University of Iasi)

■ 기획주제 2. “문화적 전환과 정체성 형성: 동유럽의 경험과 한반도의 미래”

51 • 발 표 **슬로베니아 사회·문화적 전환과 인식의 재구축: 통일 한국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고찰**
권혁재 (한국외국어대학교)

61 • 발 표 **헝가리 대전환 경험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문화지체와 사회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상동 (한국외국어대학교)

71 • 발 표 **유럽 통합을 위한 과정: 전쟁의 불길 속 새로운 우크라이나 정체성의 형성**
홍석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발 표

대전환기의 루마니아 외교정책과 한반도에의 함의

김정환
한국외국어대학교 루마니아학과

1. 들어가는 말

안보와 연계된 외교 과정은 여러 위협의 발생과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외교정책의 전제 중 하나는 루마니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으로, 특히 지정학적 상황에서 나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테러리즘이나 전쟁, 국경선 변경과 합병, 경제적 독립과 종속으로 대표되는 국가 안위와 안보의 위협은 외교정책 아젠다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루마니아 외교사에 획을 그은 사건은 1차와 2차 세계대전, 1947년 사회주의인민공화국의 선포 그리고 1989년 혁명을 통한 체제 전환이 대표적이다. 더 나아가 루마니아의 동시대 역사에서 2004년 NATO와 2007년 EU 가입은 1918년 12월 1일 ‘대루마니아’를 건설한 통일 이래 가장 중요한 역사적·정치적 업적이며, 국가적 번영의 상징이기도 하다. 오늘의 번영과 안위는 체제 전환의 혼란 속에서도 루마니아의 외교정책이 시행착오를 넘어 대전환기 굴곡의 역사를 헤쳐나온 바에 기인한다. 이는 열강과 이웃 국가의 이해관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대전환기 루마니아의 외교정책과 방향

1990년 초 루마니아 사회를 지배했던 공산정권의 몰락 이후 해방과 행복감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불안으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루마니아는 내부 안정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외국 동맹국을 절박하게 찾고 있었다. 냉전의 평화적 종식은 국제정치에 큰 변화를 불러왔고, 루마니아의 정치 및 외교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예측하고자 했다.

루마니아 엘리트들은 국경의 힘이 인구통계학적 규모, 경제력, 군사력,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강

대국의 이익과 경쟁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국경을 보장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강대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19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루마니아의 외교적 전술이었다. 이것은 정치 체제의 승계와 관계없이 루마니아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연속성이다. 1990년 이후 NATO와 EU는 루마니아에게 국가 안보와 국경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지난 30여 년간 루마니아의 외교와 국제 정책은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거치며 발전하였다. 국가 정책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강대국 간의 관계 변화와 주변 지역의 주요 사건에 의해 결정되었다.

1단계 : 불확실성의 시대 (1990-1993)

첫 번째 단계는 불확실성의 단계였다. 1991년 COMECON(6월 28일), 바르샤바 조약(7월 1일), 소비에트 연방(12월 25일)의 해체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지역 상황을 격동시키고 분열시켰다. 게다가 독일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희망하는 일부는 다른 동유럽인들과의 차별화 공식으로서 '중부유럽(Mitteleuropa)'[1]의 개념을 부활시키기도 하였다. 이런 배타적 상황 속에서 루마니아는 발칸 국가로 간주되어 비셰그라드 그룹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미국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해 미미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셰그라드 그룹이 다른 구공산주의 국가들과 차별화하도록 장려화였다.

루마니아는 트르구 무레슈(Târgu Mureş)에서의 소수민족 갈등과 1990-1991년 광부 사태로 통제되지 않은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었다. 루마니아의 미래가 서방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고립된 루마니아 외교는 반대급부적으로 소련과 러시아 연방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1991년 4월 소련과 우호 조약을 맺을 정도로 구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데 미온적이었다. 심지어 조약의 제8조에는 루마니아가 소련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어떤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Ruxandra 2022 : 919-920) 이는 향후 NATO 등 서구 주도의 동맹 가입이 불가능한 독소 조항을 의미했는데, 다행히도 조약은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았고, 다행스럽게도 이듬해 소련 해체로 인해 조약은 무효가 되었다.

90년대 전반기 루마니아 외교정책의 방향은 세 가지 옵션 사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cf. Ruxandra 2022 : 918) 첫 번째는 중립성이다. 사실 이는 1968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이후 루마니아 외교정책에 있어 하나의 '전통'이 되었으며, 여전히 지속적인 연장선에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당시의 의사 결정자들은 이 옵션이 루마니아가 서구와 동구 사이의 일시적 회색지대에서 그나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방안이라 믿었다.

두 번째 옵션은 러시아와의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루마니아 영토에 미친 역사적 영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피할 수 없는 열강의 힘에 동조해 왔지만, 1989년의 격동기 이후 러시아 자체가 서구형 민주주의에 합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사실 90년대 초반의 일부 상황은 이러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더욱이, 냉전이 끝난 후 러시아 자체는 여러 지정학

1) 비스마르크 외교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독일 영향 아래 있는 유럽 지역을 말하는데,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로 된 3국 동맹은 이것을 뿌리로 한다.

적 옵션 사이에서 변동하는 기간을 겪었는데, 그중 하나는 이전 경쟁자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었다.

세 번째 옵션은 유럽으로의 복귀에 대한 강박관념이다. 지난 2세기 동안 루마니아인의 집단적 정신세계에는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과의 문화적 유대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역동성이라는 선호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흐름의 최종 정착지는 90년대 냉전에서 승리한 블록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며, 이 세력의 대표적인 조직인 NATO와 EU의 가장 강력한 회원국이 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 옵션은 혁명 이후 90년대 초부터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국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은 순조롭게 시작되지 않았다. 1990-92년 주요 서방 국가들은 루마니아를 주의깊게 관찰하였다. 그들은 부쿠레슈티의 새 정부에게 국제 사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정치 및 경제 개혁과 인권에 대한 국내 기록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한 필요 변화를 만드는 데 더뎠기 때문에 루마니아는 서방으로부터 받은 무역, 원조, 투자 면에서 동유럽의 다른 구 공산주의 국가보다 훨씬 뒤처졌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루마니아는 유럽 공동체(EC)의 가입 협정에 서명(2월)하고 유럽 평의회(CoE)에 가입(10월)한 1993년에야 비로소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Sanborne 2004 : 147) 국제 관계에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루마니아는 내적 안정을 보여주었고, 소수민족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면서 다른 민족 간 갈등을 피했다.

2단계 : NATO 가입과 전후의 시기 (1994-2004)

이 단계에서 루마니아 외교의 주요 관심사는 유로·대서양 동맹, 즉 NATO의 가입이었다. 세 번에 걸친 민주적인 정권교체와 정부의 변화(1996, 2000, 2004년)를 통해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은 루마니아가 NATO와 EU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 합의적으로 행동했다. 이 기간의 주요 사건은 마드리드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1997), EU 가입 협상 시작을 위한 루마니아의 초대(헬싱키, 1999년 12월), 코소보 전쟁(1999), NATO 가입을 위한 루마니아의 초대(프라하, 2002년 11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군사적 참가, NATO 가입(2004년 3월 29일) 그리고 EU 가입을 위한 조약 서명(2005년 4월)이다.

1994년 1월 루마니아는 NATO 회원국과 구소련 블록에 속했던 나라 사이에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NATO에 의해 개시된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Peace)’에 참여한 최초의 중동부유럽의 국가가 되었다.(Sanborne 2004 : 147) NATO는 새로운 동유럽 정부를 안심시키는 수단으로 파트너십을 설계했지만, 아직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NATO와 함께 합동 군사 훈련, 평화 유지 임무, 훈련 및 방위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루마니아는 유럽 내 입지를 더 넓혔고,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루마니아는 1990-1991년 페르시아만 분쟁 동안 워싱턴으로부터 상당한 호의를 얻었으며, 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하루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순회의장국을 우연히 맡아 그 지위를 잘 활용하여 이라크에 대항하는 미국 주도의 동맹을 지원한 바 있다.

1996년 말 이웃 국가와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루마니아는 헝가리와 정치 조약을 체결했다.[2] 이는 소수민족과 연루된 정치적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 모두 외교정책으로 EU 및 NATO 가입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어 1997년 우크라이나와도 차례로 정치 조약에 서명하지만, 소련에게 할양된 영토에 대한 포기라는 국내의 반대 여론이 크게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나토의 패권 다툼 속에서 루마니아의 NATO 가입에 대한 1차 노력은 무산된다. 그동안 루마니아가 보였던 친서방 정책은 1990년대 말부터 미국에 대한 정치적 지향성을 표면화하기 시작한다.

이런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1998년 코소보 사태이다. 이는 루마니아가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NATO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1998년 10월 루마니아는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코소보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항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NATO로부터 요청을 받았다.(Ruxandra 2022 : 924) 1996년에 서명된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 간의 조약에서 당사자 간 제3 자가 자신의 영토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공항 사용을 승인했다.

더 나아가 루마니아 민주의회(CDR, Convenția Democrată Română)[3] 정부(1996-2000) 동안 NATO와 EU 가입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외교정책 자원을 동원하였다.(Ruxandra 2022 : 925) 모든 외교적 행위를 통해 루마니아가 '서방'의 눈에 타협과 협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2000년 구공산주의자 이온 일리에스쿠(Ion Iliescu)의 재집권은 이러한 외교정책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일리에스쿠의 이 마지막 통치는 루마니아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줄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가 부쿠레슈티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관대하지 않았기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국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이와 관련된 첫 사건으로 대량 학살, 전쟁 범죄 및 반인륜 범죄로 기소된 개인을 재판하기 위해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되는데, 미국의 조지 부시 정권은 이에 대한 비준 절차를 중단했다. ICC에 소환될 미국 시민의 송환 금지를 위해 법원의 관할권을 약화하는 외교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루마니아는 미국과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유럽 국가가 되었다. 2003년의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 루마니아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바로 미국의 이라크 개입이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명시적인 명령없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는

2) 이 조약에 따라 헝가리는 루마니아 내 160만 명의 마자르 소수민족에 대한 자치권 요구를 포기하고, 부쿠레슈티는 루마니아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3) 루마니아 민주의회(CDR)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활동한 루마니아의 여러 민주주의, 반공산주의, 반전체주의, 중도 우파 정당의 선거 동맹으로, 90년대 초중반은 코포수(Corneliu Coposu), 90년대 후반은 콘스탄티네스쿠(Emil Constantinescu)가 공동의장을 맡았다. CDR은 1992년 선거 1년 전인 1991년에 기독민주민족농민당(PNȚCD)와 국민자유당(PNL)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정치 세력 외에도 주목할 만한 시민 및 문화 단체, 기타 군소 정당이 창립 과정에 참여했다. 기민당(PNȚCD)은 1996년 루마니아 선거에서 승리했고, 동맹의 대통령 후보인 콘스탄티네스쿠가 1992년에 이은 대선에서 54%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다. 1996년 루마니아 총선은 공산주의 붕괴 이후 루마니아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의미했고,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기민당은 사회민주연합(민주당과 루마니아 사회민주당 PSDR의 연합) 및 UDMR(루마니아 내 헝가리 민주동맹)와 대연정을 구성했다.

이에 반대했다.(Ruxandra 2022 : 925) 하지만 2003년 6월 루마니아 의회는 이라크의 안정화와 재건에 군대가 참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한편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웃 국가와의 관계는 긴장으로 점철되고 있었다. 헝가리와의 관계에 있어 국경 밖의 헝가리 민족에게 ‘헝가리 시민권’을 제공하려는 헝가리 정부의 주도로 인해 자극받았다. 몰도바 공화국의 경우 2001년 블라디미르 보로닌(Vladimir Voronin)의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한 이후 일련의 외교적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내정간섭과 선거 부정 제기로 2002년 3월 키시너우 주재 루마니아 무관이 추방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흑해 대륙붕 경계를 중심으로 한 국경 문제가 있었는데, 1997년과 2003년 기초한 조약의 기본정책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러시아와의 불편한 관계와 끝없는 위협도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2003년에는 루마니아와 러시아 연방 간의 우호 관계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에는 리벤트로프-몰로토프(Ribbentrop-Molotov) 협정[4]으로 인한 영토 상실과 1916년 모스크바에 맡긴 루마니아 국보에 대한 귀환 문제[5] 등 적어도 두 가지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빠져 있었다.

루마니아의 경우, 다른 중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NATO 가입은 전략적 목표 달성을 의미했다. NATO 가입을 위한 루마니아인들의 70%가 넘는 대중적 지지는 영토 보전이 보장된 평화로운 삶의 희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NATO를 향한 루마니아의 레이스는 고독한 것만은 아니었다. 민주화 또는 군사력에 대한 루마니아의 내부 변화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계의 세력 균형에서 중동부 유럽의 역할, 미국과 러시아 연방 관계, 유럽에서 중동으로의 갈등 중심 이동, 새로운 종류의 위협 출현, 2001년 9월 11일[6] 미국 테러 이후 비대칭적 위험의 확산 등 국제 관계의 역학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체제 전환 이후 중동부 유럽의 전력 공백으로 인한 지역의 불안정화를 방지하길 원했던 미국은 1995년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의 후속으로 NATO의 동부 확대를 제안하는 결의안을 발표했

4) 공식적으로는 ‘독일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불가침 조약’, ‘히틀러-스탈린 조약’ 및 ‘나치-소련 조약’으로 불리는 나치 독일과 소련 사이의 불가침 조약으로, 북유럽 전역에 걸쳐 소련과 독일의 영향권을 확립하는 비밀 의정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약은 1939년 8월 23일 모스크바에서 소련 외무장관 뱌체슬라프 몰로토프와 독일 외무장관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에 의해 서명되었다. 그러나 2년 뒤인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여 독소 전쟁이 벌어져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소련이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유는 믿을 수 없는 서방과의 동맹보다는 히틀러와 손을 잡는 게 소련에 더 이익이 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조약에서 중부유럽을 독일과 소련이 각각 분할하는 비밀 의정서를 만들었다. 이 의정서에 따라 폴란드는 공유하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베사라비아는 소련에 귀속되었다.

5)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중앙 강대국의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가로 모스크바의 짜르 러시아에게 맡긴 루마니아 국보들이다. 중요한 양의 금, 보석 및 예술품은 볼셰비키 러시아에 의해 압수되었기 때문에 루마니아로 반환되지 않았다. 3번의 부분적 반환(1935, 1956, 2008년)이 있었지만, 이는 러시아에 보관하기 위해 보낸 물품의 일부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루마니아의 국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6) 루마니아에게 이 사건은 불안정한 발칸 반도와 소위 테러와의 전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될 수 있음을 워싱턴에 단번에 보여줄 기회였다. 9/11 직후, 부쿠레슈티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으며, 2002년 초 루마니아 경찰과 군 장교로 구성된 소규모 부대가 이미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되어 9/11의 원인으로 지목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와 탈레반 동맹군에게 대항해 개입한 미국 주도의 군대를 지원한 바 있다.

다.(Paşcu 2014: 67) 2000년대 초까지 루마니아는 사실상 NATO 회원국으로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6개의 구공산권 국가와 함께 프라하 NATO 정상회담(2002년 11월 21일)의 초대는 중요한 정치적 순간을 상징했다. 이는 1989년 이후 루마니아 외교정책의 두 가지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실질적으로 달성된 것을 의미한다.

2000-2007년 사이 루마니아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세 가지 관점에서 루마니아는 주목받았다. 첫째, 북대서양 동맹과 유럽연합의 미래 회원국으로서, 둘째, 무슬림 전선(흑해와 발칸 지역)에 인접한 국가이고, 셋째, 테러와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였기 때문이다.(Trăistaru 2021: 89)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새로운 외세의 침략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지만, 루마니아의 NATO 가입은 자유 유럽의 동쪽 국경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서부 발칸반도에서 중동에 이르는 접경 국가로서의 위치와 불확실성은 여전히 동맹의 주요한 지정학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3단계 : EU 가입과 이후 (2005년 이후)

마지막 단계의 시작은 2007년 1월 1일 EU 가입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2004년 3월 29일 NATO 가입 이후 루마니아의 외교정책은 지역적, 유럽적, 세계적 차원에서 EU 가입을 위한 주요 인적, 물적 자원에 초점을 맞췄다. 국제 정책 분야의 의사 결정자들은 여론의 막대한 지지를 받으며 행동했다.

가입 협상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인 2004년 12월 17일에 마무리되었고, 조약 서명은 2005년 4월 26일에 이루어졌다. '협력 및 검증 메커니즘(the 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7]의 준수와 함께(Bechev 2009 : 221) 2007년 1월 1일 루마니아의 EU 가입은 이루어졌고, 1989년 12월 혁명 이후 루마니아 외교정책의 두 가지 주요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버세스쿠(Traian Băsescu) 대통령은 그의 임기(2004-2014) 시작과 더불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일관된 외교정책 전략을 강력하게 제안하였다.(Ruxandra 2022 : 927-928) 첫 번째는 소위 '부쿠레슈티-런던-워싱턴 축'으로, 세 나라 간의 관계와 특별한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이 '축'은 이해당사자들의 무관심으로 2007년 이후 유명무실해졌지만, 루마니아는 여전히 미국의 이익을 면밀히 따랐다. 루마니아는 2009년 '이라크 자유' 작전에서 군대를 철수한 마지막 국가 중 하나였으며, 루마니아 내 미국 미사일 방어 기지의 유치로 미국의 절대적 우방임을 피력하였다.

두 번째 방향은 루마니아의 주요 관심 영역인 흑해에서 지역 리더로서 루마니아의 역할을 강화

7) '협력 및 검증 메커니즘(CVM)'은 유럽연합(EU)이 새로운 회원국이나 가입 예정 국가가 가입 협상 중에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이를 감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 메커니즘은 주로 사법 개혁, 부패 방지, 조직 범죄와 같은 분야에서의 진전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점차 사법 제도와 관련된 더 넓은 문제로 확장되었다. CVM은 루마니아 사법 제도에 대한 임시 지원을 위한 방식(가입일로부터 3년의 동안의 수락 조건)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연방 내 주변화를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전환되었다. 그들의 예외적인 성격으로 인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유럽에서 사법 제도에 문제가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겼다. EU 조약과 루마니아의 가입 조약에는 그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CVM 보고서에 제시된 문제로 인해 루마니아는 쉥겐(Schengen) 지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braham 2017 : 188)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흑해에서 찾고자 했던 루마니아의 역할은 흑해 지역화 과정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NATO와 EU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불가리아, 그리스와 함께 2008년 2월 공식적으로 ‘흑해 시너지 이니셔티브(Black Sea Synergy)’라는 다자간 협력 기구를 출범하였지만, 러시아와 터키라는 현실적 변수 속에서 구체적 결과를 더 산출해 내지 못했다. 사실 흑해에서의 협력 문제는 루마니아 외교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이해관계인 에너지 통로와 관련이 있었다.[8)]

외교정책의 세 번째 주요 방향은 몰도바 공화국과의 특권적인 관계이다. EU 가입 후 루마니아 국제 정책의 주요 목표는 효과적인 경제 외교를 지원하면서 몰도바 공화국을 브뤼셀로 끌어들이려는 야심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프로필을 만드는 것이었다.(Abraham 2017 : 180) 그러나 루마니아의 이러한 관심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모스크바를 향한 전략적 방향을 갖고 있던 몰도바 공화국의 보로닌(Vladimir Voronin)과 그의 구공산주의자들로부터 유보적인 대우를 받았다.

2014년부터 시작된 요하니스(Iohannis)의 임기 중 채택된 외교정책의 주요 방향은 그의 전임자와 동일하게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유럽 방위 및 대서양 관계에 대한 NATO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EU 내 루마니아의 입지 강화’였다(Ruxandra 2022 : 930-931). 첫 번째 외교정책은 2016년 3개의 바다에 접해 있는 12개 EU 회원국 간에 대통령급 단계에서 수립된 ‘3대양(아드리아해, 발트해, 흑해) 이니셔티브 (Iniţiativa celor Trei Mări)’라는 협력 형식에의 참여이다. 에너지, 디지털 및 운송이라는 세 가지 부문에서 상호 연결을 지향하는 이 프로젝트 목록에는 BRUA 파이프라인[9)], 비아 카르파티아(Via Carpatia)[10)]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루마니아의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는 NATO의 동쪽 부분인 중동부 유럽 국가와의 협력인데, 협력은 다소 선언적인 측면에 머물렀고, 대부분 국가 정상 사이의 비공식 회의로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다. 세 번째의 가시적인 성과로 2019년 상반기 처음으로 루마니아가 EU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 진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협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이를 실행하는 국가와 관련된 특정 차원을 지지하는 순회 의장직으

8) 루마니아는 자국 내 영토 469㎞를 포함하여 아제르바이잔과 오스트리아, 독일을 연결하며 2012년에 시작하여 2015년에 끝나는 가스 파이프라인인 바부코(Nabucco)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루마니아는 2009년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서명했는데, 러시아가 시작한 South Stream과 같은 경쟁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파이프라인 경로의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에 대단한 외교적 성과로 여겼다. 그러나 2013년 6월 Nabucco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사우스 스트림 역시 2014년에 중단되어 그 대신 그리스, 알바니아, 이탈리아를 거친 TAP(Trans-Adriatic Pipeline, 2016년 착공, 2020년 운영)가 건설됐다.(Ruxandra 2022 : 929)

9) 가스를 수송하는 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Bulgaria-Romania-Hungary-Austria)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로 남동유럽과 중앙유럽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에너지 공급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5년 유럽 자금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파이프라인의 루마니아 부분은 2020년에 완료되었지만, 불가리아와 그리스 부분은 아직 막혀있다.

10) 비아 카르파티아(Via Carpatia)는 유럽 횡단 교통망(TEN-T)의 일부로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Klaipėda, Lithuania)와 그리스의 테살로니키(Thessaloniki, Greece)를 연결하는 계획된 국제 고속도로 네트워크이다. 이 고속도로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의 7개국을 통과하며, 경제 개발을 강화하고, 교통 효율성을 개선하며, 지역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지만 일부 구간은 지연 중이다.

로 루마니아는 'EU 2021-2027의 다년 금융 프레임워크'를 통해 자금이 소외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당하고자 하였다.

요하니스가 루마니아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루마니아는 EU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책의 EU 우선순위와 친유럽 노선 강화, NATO와의 군사적 동맹 강화, EU 프레임워크 내에서 경제 및 사회 개발 등 EU에 대한 외교정책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하니스의 임기는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유럽 통합, 민주주의 가치, 현대적 과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헌신으로 특징지어지며, 그의 리더십은 루마니아가 EU의 적극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3. 한반도에의 함의

체제 전환 이후 20여 년간 루마니아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공간적, 특히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유럽 안보 구조에서 루마니아의 위치를 중앙 집중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여전히 '유럽 정체성'보다 '동유럽 정체성'이 아직도 더 많이 각인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아직 완벽한 셍겐 지역[11]이나 유로존의 회원국이 아니며,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루마니아는 EU와 몰도바 공화국의 진정한 접근을 위한 외교적 성과조차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아직 흑해의 지역 리더로서 자리매김도 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의 공격적인 행동을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최근 국가 안보 전략 속에서 루마니아는 여전히 '러시아 포비아(phobia)'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세기의 역사가 반복되듯이 결국 국가의 안위와 존립을 위한 외교정책의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하든 원치 않든 루마니아는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며, 미국이 반대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EU의 입장과 일치한다. 이런 모든 우려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루마니아는 NATO와 EU에 가입하여 이들 조직의 회원이 제공하는 번영과 안보의 공간에 진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자 성과이다.

EU 내부의 단일성이라는 개념이 포기되지 않는 한, 2014년 러시아 연방에 의한 크림반도 합병과 2022년 2월 푸틴에 의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사 안보가 다시 지배적인 선입견이 되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의미하게 된다. 영토 보호가 국제 문서의 힘에 의해서만 아니라 지상의 군대에 의해서도 다루어지기에 거대한 분쟁 지역에 있는 루마니아의 두려움은NATO와 미국의 군사력 유치에 관한 관심을 여전히 증폭시키고 있다.

1989년 이후 루마니아의 의사 결정자들은 외교정책이 신뢰를 구축하고 해외에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좋은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했지만,

11) 루마니아는 셍겐협정 이행협약 발효에 따라, 2024년 3월 31일부로 항공 및 해상 을 통한 셍겐국가 입국시 셍겐협정 이행협약이 전면 적용되었지만, 육상 부문에서의 국경 통제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지정학적 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모순을 만들어냈다. 결국 루마니아의 정책 결정자들의 주요 지향점은 항상 안보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외교정책 의제는 분명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소프트 파워(soft power)’ 구성과 영향의 결여 속에서 다른 국가의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하고 강압적인 수단인 ‘하드 파워(hard power)’에 더 많은 고위 정치의 역량을 모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준다.

외교정책의 단절과 연속성 또는 외교 파트너의 선택에 대한 질문은 간단하고 명확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 좀 더 미묘한 답을 얻을 수도 있다. 문제는 두 답변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이다. 루마니아는 소련의 영향권과 바르샤바 조약과 같은 조직에 속하면서도 변형의 순간에서 서방과 NATO 및 EU 회원국의 지위로 방향을 옮겼다.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눈에 띄게 큰 변화를 보였다면, 구조적인 관점에서 동시대의 루마니아가 여전히 외교정책에 특화된 패권과의 동조, 편승의 고전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변함없는 지향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루마니아와 달리하지만, 구조적인 수준에서는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루마니아의 영토는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 합스부르크 왕조와 같은 일부 대제국의 영향권에 항상 있어 강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냉전 종식 이후 불확실한 국제적 상황에서 역사와 교훈은 의사 결정자들에게 외교정책 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하고 안정적인 배경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서유럽과 러시아로 양분되어 오늘날 ‘물리적 영향력’이 지역의 구도를 지배하고 있는 루마니아의 지정학적 사례는 한반도의 국제 관계에 시사하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NATO 동부전선의 남북 최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일본과 함께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평화지대의 서부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비록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루마니아가 ‘흑해 이니셔티브’를 통해 서부 발칸과 흑해에서 중요한 정치 행위자가 되고자 했던 것처럼 한반도 역시 ‘동북아 (또는 아세안을 포함한) 이니셔티브’가 하나의 구조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89년 동유럽 대부분 국가에 일어난 혁명과 체제 전환 이후, NATO와 EU의 동진은 구소비에트의 맹주라 자부하는 러시아에게 매우 불편한 심기를 만들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진행형 사건을 만들어놓았다. 동슬라브의 정통을 바로 세운다는 이름으로 행한 침략 행위는 한편으론 몰도바 공화국의 동쪽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연결함으로 NATO에 대항하는 방어선 구축이라는 군사적 목적을, 다른 한편으론 전쟁을 통해 러시아가 확보한 ‘흑해 회랑’에서 보듯이 흑해로의 진출을 도모한 정치적, 경제적 야욕이 숨겨져 있다.

이는 한반도와 러시아에 막혀있는 중국 북동 3성의 대양 진출에 대한 야망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헤게모니를 선점하려는 중국의 ‘차항출해(借港出海)’와도 대구(對句)된다. ‘일대일로’ 이후 중국의 환태평양 진출과 ‘하나의 중국’이라는 명분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지정학적 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국제 관계와 외교 문제에 있어 한국은 일본, 대만과 더불어 대(對)중국 주축국으로서의 역학관계를 고민하게 된다.

양차 대전 중 루마니아로부터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되었다가 1991년 독립한 몰도바 공화국[12]은

12) 몰도바 공화국은 루마니아의 구 베사라비아 지역 대부분 영토(나머지는 우크라이나가 통제)로 양차 대전 중 대

한반도가 처한 분단의 현실이자 미래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베사라비아 반환에 의한 루마니아의 국가 재통일 문제는 러시아에 있어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키시너우의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루마니아가 생각하는 모든 조합에는 모스크바의 동의가 필요하다. 몰도바 공화국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루마니아와 러시아는 경쟁 관계에 있다.(Abraham 2017 : 195) 모스크바의 경우 루마니아로부터 베사라비아의 분리를 유지하는 것이 주변 지역을 통제하는데 효율적인 정책이 되는 반면, 루마니아의 경우 몰도바 공화국과의 통합은 언어적, 역사적, 종교적 공동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장기적 정치 과정의 일부에 사실상 불과하다.

같은 맥락에서 주변국을 통제하고자 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한반도의 통일은 불편한 지정학적 구도라는 인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으며, 특히 거대해진 한미일 동맹은 이미 시작된 신(新)냉전시대의 확장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반도는 왜곡된 상황과 적대적인 블록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외교적 생존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안위는 정치적, 외교적 아젠다에서 한순간도 잊혀진 적이 없는 우선순위의 의제이다.

4. 맺는말

루마니아의 경우, 공통의 가치, 이익과 목표, 민주주의 원칙과 규범,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반한 안보 공간으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NATO와 EU 가입은 열강과 주변 이웃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1989년 혁명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대전환은 루마니아에 법치주의와 민주적인 제도의 정착은 물론 가속화된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이 두 번의 전환으로부터 루마니아는 국가적 욕망, 즉 국가적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10여 년에 걸친 혼란기, 특히 일리에스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대내외 정책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가 EU와 NATO 가입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0-2007년 사이에 채택한 주요 조치는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유럽으로의 복귀를 가속화시켜주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프랑스와 독일을 등에 업은 초기 외교정책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에 속도를

루마니아의 일부였다. 인구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같은 슬라브 소수민족 외 대부분 루마니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족주의 루마니아인들 사이에는 몰도바가 다시 한번 조국과 재통일 되어야 한다는 강한 대중적 감정이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1991년 몰도바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모스크바의 적대감을 피하고자 공개적으로 재통일을 요구하는 것을 회피했다. 하지만 1992년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동부, 주로 슬라브계 지역에 있는 분리주의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몰도바에서 분리되어 독립을 선언하면서 내전이 발발했다. 러시아 군은 반군을 지원했고, 루마니아는 몰도바군에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는 교착 상태로 끝났지만,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사실상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 후 몇 년 동안 모스크바는 몰도바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분리주의자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몰도바는 1994년 3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참여 유권자의 약 95%가 루마니아와의 연합보다는 독립 국가를 지지했다. 이는 부쿠레슈티 입장에서 두 나라의 합병에 대한 남은 희망을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좌절된 것처럼 보였다.(Sanborne 2004 : 149-150)

더하지 못했던 반면, 역설적으로 열강과 서유럽의 헤게모니 그리고 발칸과 중동 상황은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신뢰하게 만듦으로 이러한 시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NATO 가입과 마찬가지로 루마니아의 유럽 통합은 다자간 이익의 결과이다. 국가의 정치 및 외교 활동은 정치적 통합과 경제 확장을 위해 동쪽으로 확대하려는 EU의 관심과 함께 수렴되었다. 루마니아의 국제정책의 관점에서 EU 가입은 중요한 성공을 의미했지만, 유로화를 채택하고 셍겐 지역에 완벽하게 합류하지 않는 한 EU 가입은 미완이며 여전히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대전환기 지정학적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유럽의 초기 무관심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가 NATO와 EU 가입이라는 국가의 전략 목표를 이룬 것처럼 북한과의 대치 상태, 중국의 끝없는 위협과 정치적 개입 속에서 한반도는 이러한 영향력을 상쇄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교정책의 마련이 절실하다. 루마니아의 EU 통합 과정이 유럽 및 대서양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근동 및 중동의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처럼, 심지어 그것이 지정학적 복잡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온건한 시도에 불과할지라도 한반도 역시 동북아 3국 및 환태평양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에 대한 지속적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Abraham, Florin (2017) *Romania since the second world war*, London: Bloomsbury Academic

Bechev, Dimitar (2009) “From Policy-Takers to Policy-Makers? Observations on Bulgarian and Romanian Foreign Policy Before and After EU Accession” in *Perspectives on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vol. 10, no. 2, 210–224.

Ivan, Ruxandra (2022) “Politica externă a României în perioada postcomunistă” in *Panorama postcomunismului în România* (Corobca, Liliana ed.), Bucureşti: Polirom.

Paşcu, I. M. (2014) *Bătălia pentru NATO, Raport Personal*, Bucureşti: R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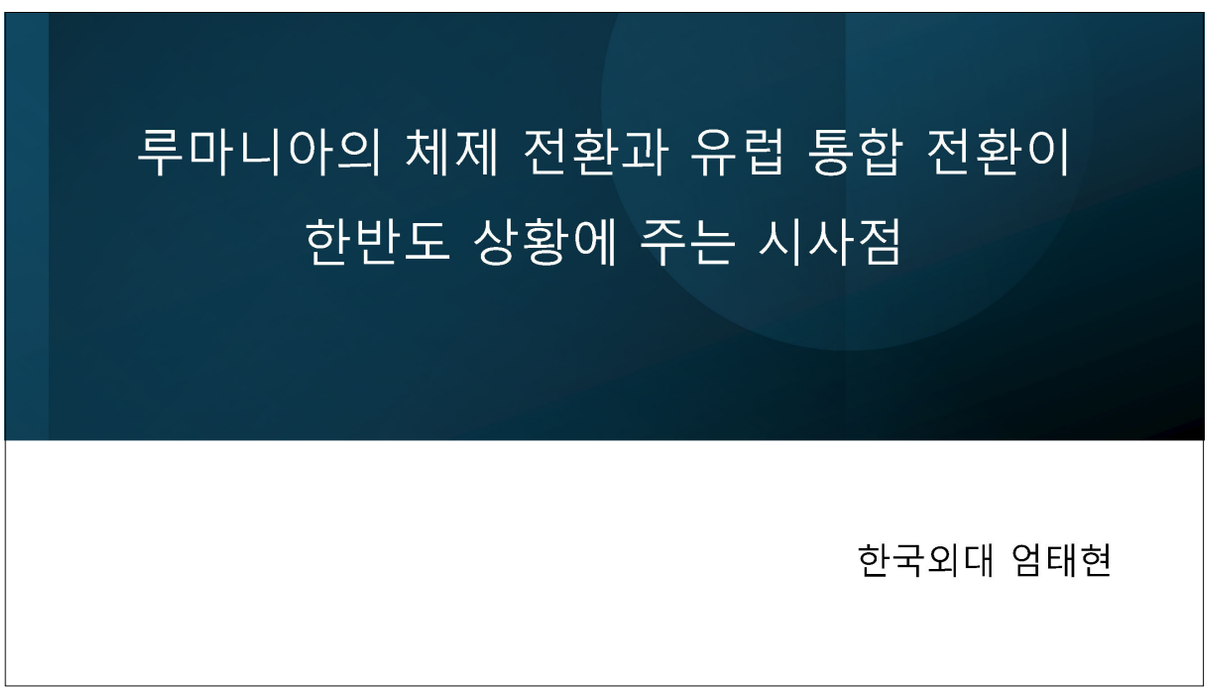
Sanborne, Mark (2004) *Nations in Transition: Romania*, New York: Fact on File.

Trăistaru, Marius (2021) “The Main Measures Adopted by Romania between 2000-2007 to achieve the Strategic Objectives (Accession to the EU and NATO)” in The *Romanian Economic Journal*, Year XXIV no.80, 81-91.

발 표

루마니아의 체제 전환과 유럽 통합 전환이 한반도 상황에 주는 시사점

엄태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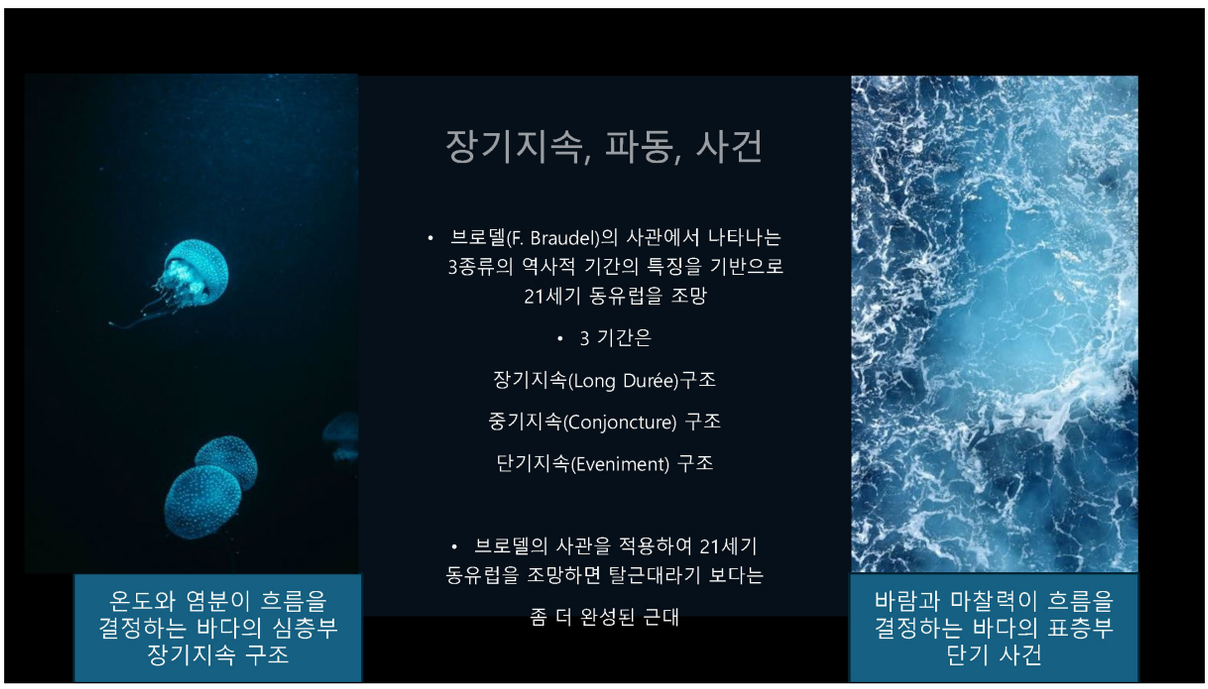
1. 거대 사회 변화에 대한 역사적 관점
2. 동유럽 민족 국가의 탄생
3. 루마니아의 체제전환
4. 체제전환에서 유럽통합으로
5. 재등장한 극우 민족주의
6. 한국사회로의 시사점

01 거대 사회 변화에 대한 역사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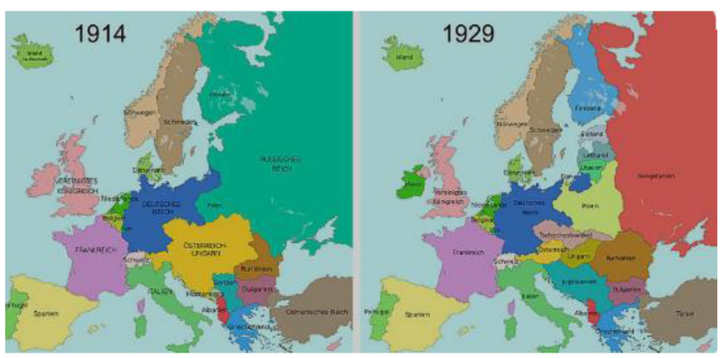




장기지속 구조에서 볼 때, 21세기는 진화한 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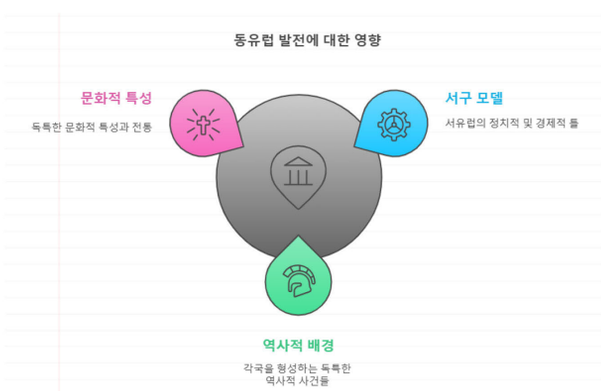
- **장기지속 구조**의 핵심: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민족과 국가**
- **중기지속 구조**의 핵심은 **근대적 삶의 서사** 창출
  -이 과정에서 여러 방향이 등장하면서 경쟁
  -근대적 삶의 서사: **세계화, 여러 이념, 정체성, 기술의 진보 등장**
  -이 과정에서 여러 서사의 부침은 잘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존재
-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통합전환은 장기지속 구조내 발생한 일련의 연속된 사건
- 최근의 동유럽 극우 민족주의는 민족과 국가라는 근대로부터의 근원적 가치에서 출발

02
동유럽
민족국가
형성



지연된 근대화

- 19세기 중반부터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모델을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서유럽의 근대화 과정에 영향받음
- 자체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 남음
-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
- 대체로 산업화와 경제적 기반없는 근대화



동유럽의 기나긴 19세기 (18~20세기)

- 민족국가 형성에 오랜 시간 소요
- 배경: 제국의 흥망성쇠
  발칸에 전파된 민족주의
- 사건: 19-20세기 사이의 혁명, 독립운동,
  주요 전쟁
- 결과: 경제적 기반 형성 없는 민족과 국가 탄생
  불완전성, 서유럽주도, 내재된 갈등



민족국가 탄생에 기여한 1차 대전과 동유럽 민족주의

- War broke out in Europe in 1914 because of a deed carried out in the name of a people no one had previously heard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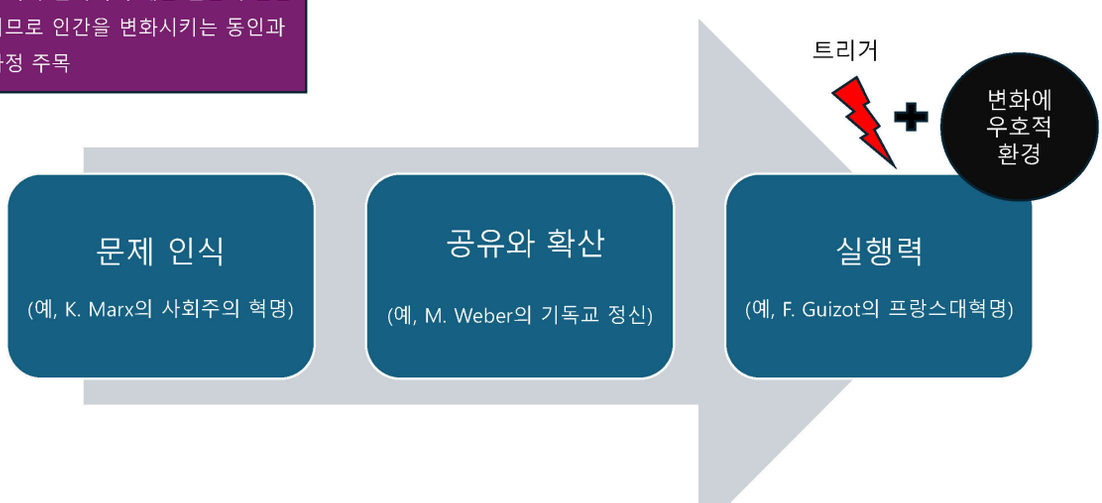
『From Peoples into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nnelly, John

03 루마니아의 체제전환



한 사회의 거대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사회적 변화의 주체는 실존적 인간이므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동인과 과정 주목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을 가능하게 한 요인

-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경제 파탄 >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 인식 형성
- 1인 독재의 정치적 무책임과 무능력 >방송을 통한 변화의 실체 확인 >인식의 확산
- 조기 은퇴한 구 공산주의자들의 조직력 > “6인 서한”에서 확인 > 실행능력
- 트란실바니아 헝가리인 집중거주지역에서 촉발된 시위 > 트리거
-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 사회의 변화 주변> 동유럽의 몰락, 몰타회담 등 >우호적 환경

1989년 민주화 혁명 이후 10년의 결과

- 준비되지 않은 혁명: 구 공산주의자의 장기 재집권
- 민주화 세력의 무능력: 경제적 부진의 연장
- 공산주의 경제 청산의 한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 실패, 해외직접 투자 부진
- 구조조정 실패와 장기화, 노멘클라투라의 부패로 인한 피로감
- 안전망 없는 무자비한 자본주의, 청년세대의 실망과 해외 탈출
- 지속적 인구 감소

04
체제전에서 유럽통합으로



21세기 유럽 연합 가입 전후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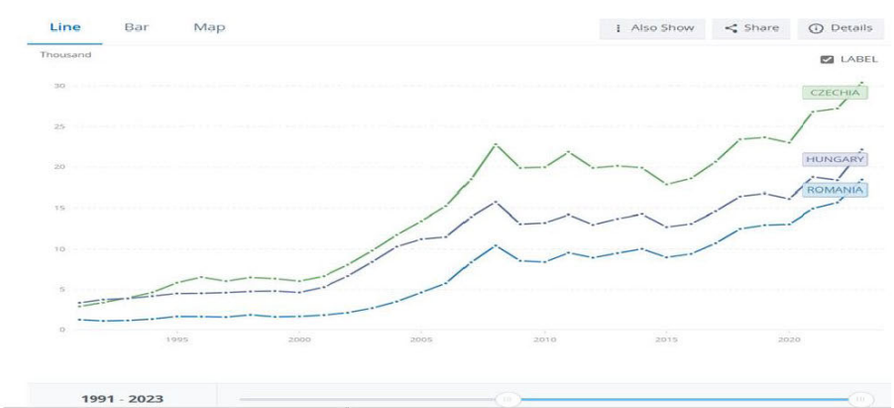
유럽연합 가입을 통한 경제적 발전은 여러 방면에 선순환적 발전을 가져옴



GDP 성장률 변화: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199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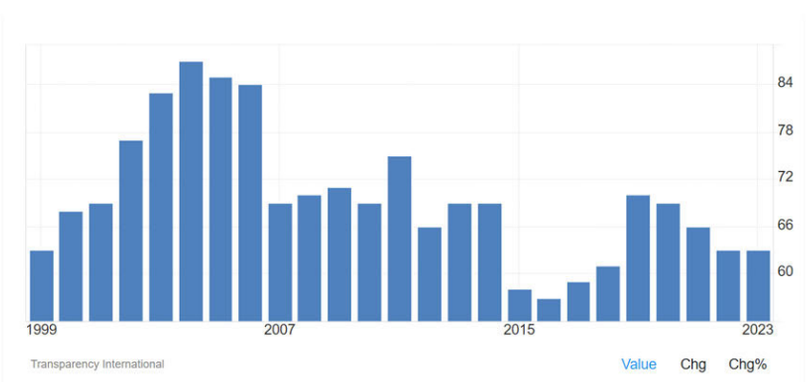
1인당 GDP변화: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1991-2023)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3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1991-2023, net)



루마니아 부패 지수



05
재 등장한
극우민족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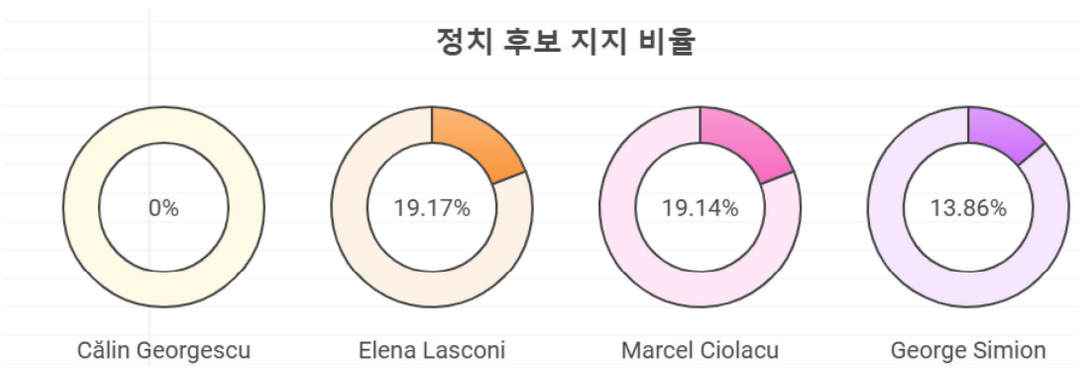


루마니아 극우민족주의의 재등장: 유럽의회 선거결과(24년6월)

- PSD-PNL: 48.55%
- AUR:14.93% ←
- Alianța dreaptă unită: 8.71%
- UDMR: 6.48%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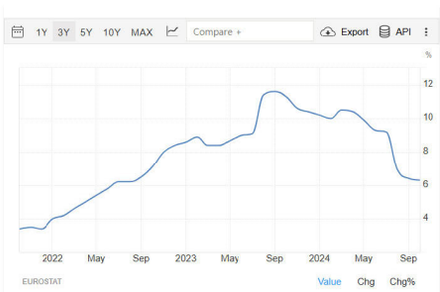
- Călin Georgescu 무소속(틱톡)- 극우 민족주의 기반(반EU, 탈NATO, 친러 성향)
- Elena Lasconi USR (중도우파)- 반부패와 투명성
- Marcel Ciolacu PSD PSD (좌파) - 부소적, 기독교, 사회주의
- George Simion AUR (극우)-민족주의, 반공, 기독교 보수주의
- Nicolae Ciuca PNL (중도우파)-자유주의, 경제적 자유 > 현 대통령 소속당



극우 민족주의 재등장 원인1: 경제적 문제

- 코로나, 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 공공 부채문제 (1,548억유로/gdp 대비49.7%)
- 농민 보조금 지원 중단 (이로 인해 시위발생)
-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 해외 이민에도 부정적
- 1930년대 상황과 유사 > 예)29년 대공황이후 석유와 밀가격은 50%로 하락

  당시 루마니아GDP=석유 50%+밀 50%



근원물가지수(식량, 에너지 제외)

극우 민족주의 재등장 원인2: 이민, 난민 문제

-루마니아는 청년세대의 EU 이주로 국내 노동력 보충을 위해서 비 회원국 이민을 추진

-23년 기준 약 74,400명이 공식적 고용 상태

(전년 대비 44% 증가)

-난민수 약 86,000명(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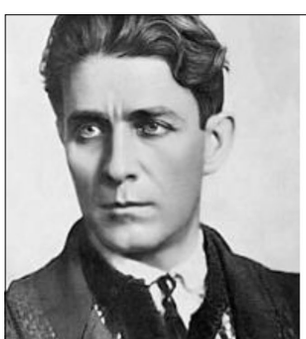
-이민의 절대적, 상대적 수치는 낮아보임(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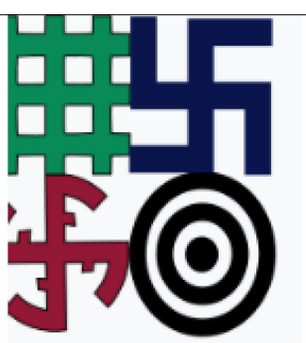
-EU전체의 비회원국 이민자 비율은 약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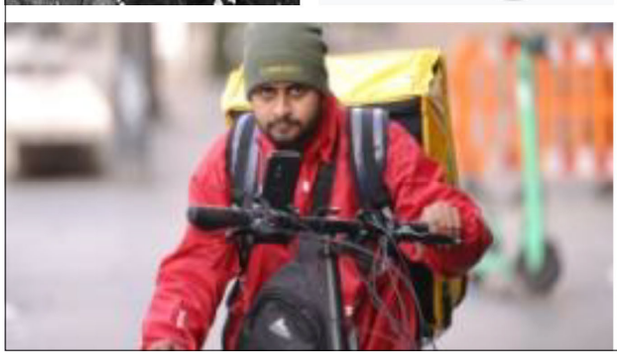
-이에 반감을 표시하는 것은 틱톡 등 미디어의 영향, 경제적 불안감에서 비롯

Non-national population by group of citizenship, 1 January 2023

	Total		Citizens of another EU Member State		Citizens of a non-EU country		Stateless	
	(thousand)	(% of the population)	(thousand)	(% of the population)	(thousand)	(% of the population)	(thousand)	(% of the population)
Belgium	1,589.0	13.5	981.7	8.4	606.6	5.2	0.7	0.0
Bulgaria (1)	83.7	1.3	18.6	0.3	64.6	1.0	0.6	0.0
Czechia	855.1	7.9	179.8	1.7	675.0	6.2	0.3	0.0
Denmark	621.1	10.5	255.8	4.3	356.8	6.0	8.5	0.1
Germany	12,324.2	14.6	4,598.6	5.5	7,715.0	9.1	10.6	0.0
Estonia	236.8	17.3	23.0	1.7	213.7	15.6	0.0	0.0
Ireland	759.1	14.4	347.5	6.6	410.8	7.8	0.8	0.0
Greece	764.8	7.3	114.9	1.1	649.9	6.2	0.0	0.0
Spain	6,089.6	12.7	1,690.7	3.5	4,394.9	9.1	4.0	0.0
France (2)	5,613.8	8.2	1,539.2	2.3	4,074.6	6.0	0.0	0.0
Croatia	70.2	1.8	14.9	0.4	54.7	1.4	0.6	0.0
Italy	5,141.3	8.7	1,393.8	2.4	3,746.9	6.4	0.6	0.0
Cyprus	183.5	19.9	93.1	10.1	90.5	9.8	0.0	0.0
Latvia	261.8	13.9	6.5	0.3	255.2	13.6	0.1	0.0
Lithuania	98.4	3.4	2.0	0.1	94.4	3.3	2.0	0.1
Luxembourg	313.2	47.4	245.8	37.2	67.3	10.2	0.2	0.0
Hungary (1)	226.1	2.4	83.7	0.9	142.3	1.5	0.1	0.0
Malta	137.4	25.3	42.6	7.9	94.8	17.5	0.0	0.0
Netherlands	1,422.9	8.0	704.2	4.0	713.5	4.0	5.1	0.0
Austria	1,714.7	18.8	867.4	9.5	842.6	9.3	4.7	0.1
Poland (1)	436.0	1.2	32.6	0.1	402.8	1.1	0.6	0.0
Portugal	736.8	7.0	170.5	1.6	566.3	5.4	0.0	0.0
Romania (1)	212.8	1.1	53.7	0.3	158.8	0.8	0.3	0.0
Slovenia	169.6	8.0	26.6	1.3	143.0	6.8	0.0	0.0
Slovakia	61.3	1.1	38.8	0.7	22.6	0.4	0.0	0.0
Finland	322.0	5.8	106.0	1.9	214.7	3.9	1.3	0.0
Sweden	854.2	8.1	309.0	2.9	535.2	5.1	10.0	0.1
Iceland	65.0	16.8	49.5	12.8	15.5	4.0	0.0	0.0
Liechtenstein	13.6	34.4	7.2	18.0	6.5	16.3	0.0	0.0
Norway	610.8	11.1	358.6	6.5	250.6	4.6	1.7	0.0
Switzerland	2,294.3	26.0	1,474.2	16.7	819.4	9.3	0.7	0.0







극우민족주의 재등장 원인3: 문화적 정체성

- 전통과 역사에 대한 강조: 고유의 정체성
- 글로벌화에 대한 반발: 외국문화에 대한 두려움
- 유럽연합과 미국에 대한 반감: 주권침탈과 문화적 독립성에 침해 우려
- 1930년대 극우민족주의를 통해서 루마니아적 가치를 지키려했던 상황과 유사

예) 미카엘대천사군단, 철위단 등의

정교회 가치 숭상, 농촌중심, 자연 회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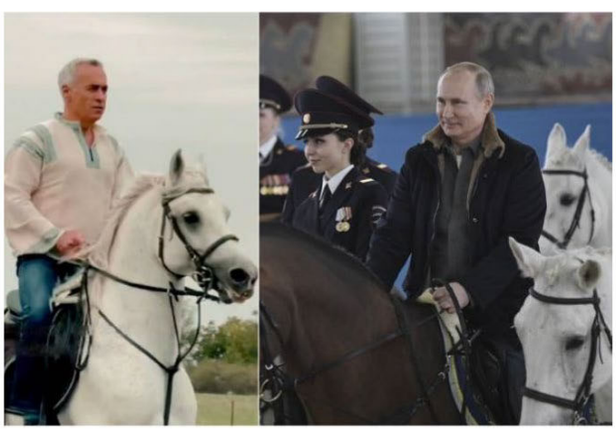


코드레아누와 그의 지지자

극우 민족주의 재등장 원인4: 정치적 대안부재

- 루마니아 정치권 자체에 대한 회의감
- 유럽과 미국에 대한 배신감
-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 상실
- 러시아를 대안으로 인식
- 1930년대 루마니아 상황의 재현

예) 독일 파시즘 성공을 대안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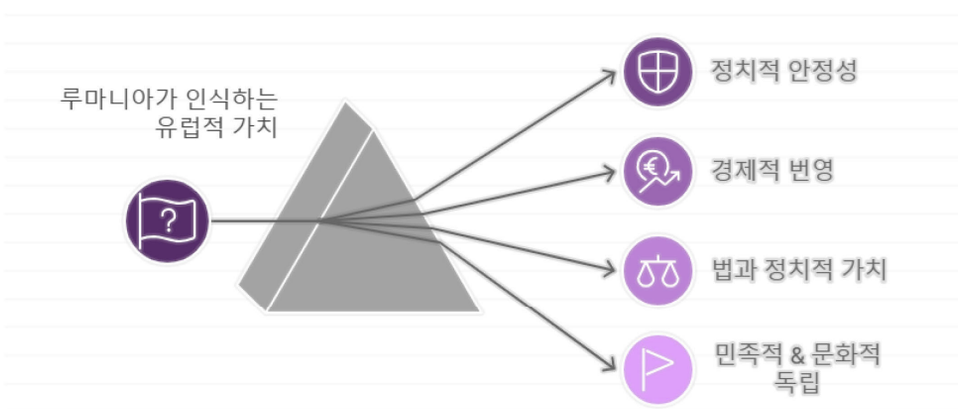


06
한국사회로
의 시사점



루마니아가 인식했던 유럽적 가치

루마니아의 체제전환과 유럽통합은 연결된 사건으로 유럽과의 통합을 지향



유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정치적 안정성 : EU+NATO 중심의 안보 > 러-우전쟁과정에서 나토에 대한 불신
- 경제적 번영 : 일정 수준의 풍요 > EU 역시 경제적으로 부진
- 법과 정치적 가치 : 민주주의 & 법치주의 =정치적 올바름 >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 민족적 독립과 문화적 독립: 유럽통합을 지향> 역설적으로 루마니아 민족과 문화적 독립 지향
  >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유럽연합 자체의 근본적 취약성

루마니아 체제전환과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적 인식 증가

- 루마니아의 유럽 통합 이유: 경제적 풍요, 정치적 자유, 지정학적 안보
- 유럽적 가치 지향의 전통: 지식인 중심 > 대중적 기반은 미약
-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 확산: 절대적 부는 증가했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상승
- 유럽의 보이지 않는 국경, 통합의 유리장벽: 17년째 쉥겐가입 시도(25년 가입)
- 갈림길에 선 루마니아 > 24년 12월의 대선 결선투표와 총선

루마니아의 체제전환과 유럽통합의 사례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 북한의 체제전환은 1989년 루마니아 혁명과 같이 거대 사회 변화의 맥락에서 발생 가능
- [**문제인식 > 인식 확산 > 실행력 > 트리거 > 우호적 외부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예상가능

- 최근 북한은 남한과의 민족적 동질성 부정: 전통적 정책과 인식의 전환으로 중대 변화에 주목해야
- 한류문화 접근에 대한 가혹한 처벌
- 북한 주민의 <남한 문화에 대한 동경 >이 체제유지에 주요 문제점으로 등장했음을 반증
- <북한 체제에 대해 비교열위> 인식이 확산 단계에 있을 가능성 시사
- 경제적인 문제보다 문화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로 더 파급력이 큰 사태가 될 수 있음

루마니아의 체제전환과 유럽통합의 사례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 체제전환 실행능력: 대안세력으로 알려진 <신조선, 자유민주당> 등은 아직 불분명
- 러시아 파병 및 대규모 사망사태 발생시 트리거가 될 가능성 있음
- 현재의 신냉전 상황은 외부환경에서 볼 때, 체제전환에 우호적이지 않음
- 반대 상황인 90년대말의 냉전종식이 독일 통일로 이어짐을 볼 수 있음
- 루마니아 사례에서 볼 때, 남북한 체제 통합시 상당한 갈등 요인 내재
- 통합에는 양적으로 충분한 시간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질적으로 법, 제도,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 이전 사례에 대한 세심한 연구필요

발 표

The Role and Activity of Romanian Elites in the First Steps of the Transition Towards Democracy*

Cristina Preutu
Associate Professor Cristina Preutu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lexandru Ioan Cuza University of Iasi

Introduction

The communist regime in Romania, which lasted from 1948 to 1989, was marked by several paradoxes. Established under the pressure of the Red Army, Soviet advisors, and amid one of the most radical repressions against the interwar political and intellectual elite, the regime in Romania bore the hallmarks of radical Sovietism, particularly in the 1950s. Compared to the dynamics of the others communist bloc, Romania often adopted distinct positions in its foreign policy. For instance, while in 1956 the communist leadership in Bucharest sided with the USSR in suppressing the uprising in Hungary, in August 1968, Romania was the only socialist state that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invasion of Czechoslovakia by Warsaw Pact troops, instead openly condemning the action. Shortly thereafter, Romania became one of the most prominent allies of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communist bloc and even held a most-favored-nation trade status with the U.S. However, in the early 1980s, the leadership in Bucharest was cautious toward the *perestroika* policy initiated by Gorbachev. By 1988, Romania had abandoned its most-favored-nation status with the U.S. and described the 1989 Malta summit between Gorbachev and President George H. W. Bush as a "second Yalta Agreement" of 1945.

By December 1989, Romania found itself under one of the most ideologically conservative regimes in Eastern Europe, with a rigid, monolithic party structure, no real political opposition, and a society exhausted in last years because of harsh economic rationalization policies. The 1989 revolution in Romania was the bloodiest and most violent of all the Eastern Bloc uprisings,

* This paper is a draft. A complete version will be published in a academic review.

marking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 in Europe. The role of society in this process was crucial and remain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spects of Romania's revolution.

In Romanian historiography, many aspects of the 1989 Revolution and the political developments that followed remain unclear. Even one of the key political figures of the time, Ion Iliescu, has shifted in public perception—from being hailed as a hero of the revolution and a democratic alternative to the former leader, to a figure associated with the violence in Bucharest during the "mineriades" of 1990 and 1991. The definition of the new political power and elite, as well as the creation of a genuine political opposition, which would, together, drive the policies of the new regime, were both tense and exhausting processes for the elites and the population alike.

Objectives

Have a starting point the theory of sociologist Vilfredo Pareto[1)], who divided elites into governing and non-governing categories, this analysis will focus on the role of the intellectual elite in Romania in shaping the construction and understanding of democracy, as well as in the creation of political opposition. At least in the first years following 1989, the movement of elites between these two categories, as well as the replacement of one elite with another, made this process dynamic and fluid, providing consistency to institutional and political changes.

Immediately after the 1989 revolution, the question of political structures and authority seemed to be the primary urgency, drawing upon the full energy of society. Within this context, the dynamics between the governing and non-governing elites were particularly significant. To explore this dynamic, we will focus our analysis on key moments in defining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ower and intellectual influence in the period following the revolution.

The Political Landscape Following the Revolution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revolution, the political scene in Romania became a focal point of transformation, channeling social and political energies into shaping a new democratic framework. By the spring of 1990, over 90 political parties and formations had emerged, reflecting the public's eagerness to engage in political life and contribute to the transition from an

1) See Vilfredo Pareto, *The Transformation of Democracy*, Transaction Books, 1984.

authoritarian regime. Among these, particular attention was drawn to parties inspired by the interwar traditional political structures, which soon entered into an ideological confrontation with the National Salvation Front (NSF).

The revolution brought the National Salvation Council, led by Ion Iliescu, to power. Announced in a public statement on December 22, 1989, the National Salvation Front Council (CFSN) assumed “all power in the state,” declaring the dissolution of the structures controlled by the Ceaușescu regime. Key reforms were proclaimed, including the separation of powers, term limits for political officeholders, and the commitment to democratic governance.

Initially composed of 40 members, the CFSN represented a mix of former political elites and dissident intellectuals who had opposed Nicolae Ceaușescu's regime. Notable figures included: Doina Cornea (a writer and vocal dissident of the communist regime), Ana Blandiana (a writer and critic voice of the former regime), Mircea Dinescu (a writer, placed under house arrest in 1989 for declaring support for the *perestoika* policy) László Tőkés (a pastor, under house arrest, and whose opposition to the regime sparked the revolution in Timișoara), Dumitru Mazilu (a former *Securitate* officer, 1986 – 1989, Mazilu was placed under house arrest as a result of his criticisms of Ceaușescu’s handling of human rights), Dan Deșliu (an actor and poet, supporter of *protochronism* in the 70s; since 1980 he renounced his party membership and became a critical voice against N. Ceaușescu), Corneliu Mănescu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Romania) between 1961-1972; in March 1989 he signed an open letter, together with 5 other high-level nomeclatura, in which he criticized the radicalization of Ceaușescu's power), Alexandru Bârlădeanu (former member of the Executive Political Committee, one of the signatories of the “Letters of the 6”, Ion Caramitru (actor), Sergiu Nicolaescu (actor), etc.

By December 27, 1989, the Council expanded to 145 members, necessitating the creation of an Executive Bureau chaired by Ion Iliescu. While the NSF garnered substantial public support and moral authority due to its role in the immediate transition, it remained a provisional entity, unable to fully legitimize the nascent democratic regime.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legitimacy required free and fair elections. Therefore, the electoral struggle around the first presidential elections in May 1990 was chaotic, radical in attitudes and manifestations, which still resided on the mental structures of the old regime.

On February 9, 1990, the Provisional Council of National Unity (CPUN) was esta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Ion Iliescu as a temporary governing body until the general elections. This council was composed equally of former members of the National Salvation Front (NSF) and representatives of newly founded political parties, symbolizing an attempt to balance continuity and reform. However, when the NSF transitioned into a political party and announced it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s, it sparked the first significant post-revolutionary political crisis.

What was the situation of the other parties? Sothere, on 8 January 1989, Corneliu Coposu, Ioan Alexandru and Ion Rațiu were re-founded The Christian Democratic National Peasants' Party (CDNPP), being thus the first officially registered political party after the fall of communism. Beyond the legitimization from the former National Peasant Party (ro. PNȚ), the addition of Christian Democrat was made to show the connection with the European Christian Democratic International.

Corneliu Coposu, was a Romanian politician, Greek Catholic,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Peasant Party until its ban in 1947. Having endured 17 years of political imprisonment, Coposu emerged as a key figure in the democratic opposition. Since 1987, Corneliu Coposu managed to inform Western political leaders, from the branch of European Christian Democratic and conservative parties, about the illegal existence in communist Romania of a nucleus that assumed the mission of continuity with the National Peasant Party, abolished by the communists. Moreover, to mark the affiliation to the group of Christian Democratic and Conservative Parties, to the Christian Democratic International, the NPP completed its name, and became the National Peasant Christian Democratic Party (NPCDP). Following the party's official re-registration in 1990, Coposu served as its president until his death in 1995[2].

Ion Rațiu, another important leader of NPCDP, was a lawyer, diplomat, journalist, businessman, writer and politician. He had a different path than Coposu. Ion Rațiu remained in exile in London after the Communist Party (RCP) came to power in Romania in 1947 and in exile, he became a prominent anti-totalitarian activist, contributing to organizations such as the Central European Student and Youth Society and collaborating with Radio Free Europe, the BBC Romanian Service, and Voice of America. As founder and president of the World Union of Free Romanians, he worked tirelessly to promote Romanian democracy. Rațiu returned to Romania in January 1990 to assist in the revival of the National Peasant Party[3].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Liberal Party (NLP) was another key political entity revived during this period. Officially re-established on January 15, 1990, it positioned itself as a historical party with a commitment to democratic principles. Under the leadership of **Radu Câmpeanu**, the PNL achieved modest success in the first elections on May 20, 1990, securing 39 parliamentary seats. Shortly thereafter, on July 23, 1990, a splinter group within the party founded the National Liberal Party–Young Wing (PNL-AT). Prominent members of its initiative committee included **Horia Rusu**, **Călin Popescu-Tăriceanu**, **Andrei Chiliman**, **Radu Boroianu**, and **Dinu Patriciu**, signaling a generational shift and diversification within the liberal movement[4].

A critical observation can be made regarding the strategies of legitimacy and image-building

2) See Tom Gallagher, *Democraţie şi naţionalism în România 1989-1998*, Editura All, 1999.
3) Ion Rațiu, *Şansa pe care am ratat-o* (www.laivindur.com)
4) *Documentar: Partidul Naţional Liberal – 140 de ani de la înfiinţare*, pe www.rador.ro

adopted by the newly re-established political parties after 1989.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political struggle between the interwar parties and the Romanian Communist Party (1944–1947), coupled with the repression and censorship suffered by members of these parties, motivated the survivors of these events to re-enter political life post-revolution. However, these parties—such as the NPCDP and the NLP—did not simply revive their interwar doctrines. Instead, they legitimized themselves by adopting a staunch anti-communist stance, positioning themselves as adversaries of the system that had dominated Romania for decades.

The legacy of interwar political life influenced the composition and ethos of these parties. Members of the interwar parties had been drawn largely from Romania's intellectual and technical elite, shaped by the educational reforms and social structures of that era. This legacy shaped the perception of the PNȚCD upon its reorganization, instilling—almost unconsciously—the belief that the party should once again be a bastion of the nation’s elite. Its members were expected to spearhead the fight against the remnants of the communist party or its successors, which had historically been rooted in the working class during the 1940s and 1950s.

This implicit elitism and anti-system positioning became defining features of the NPCDP's early dynamics, reflecting the tension between its historical legacy and the need to adapt to the new democratic landscape. These dynamic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the party's trajectory in the months following its re-establishment.

Creating political opposition

In January 1990, the announcement by the National Salvation Front (FSN) of its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s—initially scheduled for April 1990—triggered Romania's first post-revolutionary political crisis. Many members of newly formed political parties expressed concerns that they were unprepared for such elections. They lack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ublic visibility needed to effectively communicate their governing plans. This situation was exacerbated by the FSN’s dominance of the political landscape, which left little room for the emerging parties to establish themselves.

The general population, still grappling with fear and confusion after the upheaval of the revolution, retained a strong attachment to the group led by Ion Iliescu, which had taken power immediately after Nicolae Ceaușescu's removal. Many leaders of the new parties were unfamiliar to the public, further complicating their efforts to gain legitimacy. The proliferation of numerous new parties added to the sense of disarray, creating more confusion than confidence among citizens. At

that moment, the Romanian people prioritized stability and social security over political plurality.

According to a SOFRES survey conducted in March 1990, it seems that the significants fears of Romanians at that time were related to ethnic conflicts (76%), unemployment (58%), and war (55%). Respondents to this survey considered that Romania's priorities at that time were: improving living conditions (78%), free election of political leaders (77%), consolidating peace in Europe (58%), abolishing communism in Romania (54%), freedom of the press (53%), rapprochement with East and West (48%), development of private property (44%), and freedom of trade unions (38%). Despite these uncertainties, some of the FSN's early measures were appreciated by the population. Notable policies included prioritizing the supply of basic goods (70.81%), ensuring religious freedom (54.02%), granting freedom to travel abroad (51.55%),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and unions (34.99%), protecting minority rights (22.26%), and recognizing the right to strike (19.77%)[5].

A third, more unpredictable element in the post-revolutionary political landscape was the spirit of rebellion exhibited by certain groups. Such attitudes and manifestations are a common byproduct of revolutionary contexts, often fueled by uncertainty and societal unrest. These dynamics were particularly evident in episodes like the miners' revolts, which became emblematic of the tension between supporters of the NSF and those aligned with the emerging opposition parties.

The NSF's decision to transform into a political party and participate in elections marked a turning point in Romania's transition to democracy. This decision catalyzed the creation of a political opposition, further emphasizing societal divisions along social and professional lines. Notably, many members of the NSF defected to the ranks of the newly established NPCDP or the NLP. Among these were prominent figures from the intellectual and humanist elite, such as **Doina Cornea**, **Ana Blandiana**, and **Dumitru Mazilu**, whose prior dissidence against the communist regime imbued their political affiliations with significant moral authority.

These developments highlight the fragmented and dynamic nature of Romania's early post-communist political scene, where ideological, professional, and social identities intersected to shape the trajectory of the nation's nascent democracy.

A noteworthy example of intellectual dissidence in Romania's post-revolutionary period is the case of Doina Cornea[6], a writer, one of the most recognized voices of intellectual dissidence in

5) *Ibidem*, p. 83.

6) **Doina Cornea,** was French literature professor at the Cluj-Napoca Babes Bolyai University. She became known in the 1980s for her public stances against the communist government and Nicolae Ceaușescu – highly unusual in a country where few dared express oppositions to the highly repressive government. She circulated translations of banned books and also authored no less than 31 letters broadcast on Radio Free Europe between 1981 and 1989.
She was fired from the university in 1982, arrested and interrogated by the Securitate on several occasions, including in 1987, when she supported a revolt of workers in her native town of Brasov. On November 18,

Romania. Her opposition began long before the revolution, as she transmitted anti-communist messages abroad through Radio Free Europe. This activism led to her being placed under house arrest in 1988. On December 21, 1989, just before the fall of Nicolae Ceaușescu, Cornea was released from detention.She immediately joined the demonstrations in Cluj, and on December 22, 1989 Cornea was asked to become a member of the first post-communist government organization, the National Council of the National Salvation Front. She quit this body on January 23, 1990. Later, Cornea aligned herself with the center-right Democratic Convention, reinforcing her opposition to the NSF and its political trajectory.

This case illustrates a broader dynamic in post-revolutionary Romania: while the NSF initially consolidated power, opposition parties—particularly the NPCDP and NLP sought to rally the intellectual elite to their cause. These parties positioned themselves as ideological counterweights to the NSF, drawing legitimacy from the contributions of prominent dissidents like Cornea, whose moral authority and intellectual influence resonated deeply in the nascent democratic landscape.

The events of February 1990, particularly the first miners’ riot, significantly amplified the tendency toward mental segregation within Romanian society. On February 18, a pre-announced protest took place in Victoriei Square. Initially directed against the remnants of the former *Securitate* and the legacy of communism, the protest quickly shifted its focus to target those who had assumed power following the fall of Nicolae Ceaușescu. Tensions escalated when a group of protesters stormed the government building, causing substantial damage.

The following day, miners from the Jiu Valley arrived in Bucharest, their presence visibly altering the dynamics of the situation. The miners aligned themselves with maintaining "order" and were seen as defenders of the newly established regime. NSF representatives appeared to welcome the miners' intervention, as their actions contributed to quelling the unrest and restoring stability.

However, the origins of these events remain contentious. It is unclear whether the rioting group of protesters had direct ties to members of the newly formed political opposition or if the miners’ involvement was orchestrated by the political power of the time. This uncertainty invites further investigation and represents an episode worthy of separate analysis.

What is undeniable, however, is the psychological impact of these events on the public

1987, together with her son, Leontin Iuhaş, in Cluj-Napoca they spread 160 manifestos of solidarity with the workers who rebelled against the Ceausescu regime. They were both arrested the following day and kept in prison for five weeks. After 1989, Cornea became a vocal human rights activist. She also advocated the restoration of the monarchy in Romania and for the rights of the Greek Catholic Church whose properties were confiscated by the communist state. Cornea was born into a Greek-Catholic family that vocally opposed the communist ban on the Greek Catholic Church in 1948. For her advocacy work she received several distinctions, including from Pope John Paul II and the French president as well as from Romania’s former King Michael I (Ana Maria Luca, *Famous Romanian Dissident Doina Cornea Dies*, published on 4 May 2018, on BalcanInsight.com).

consciousness. A distinctly bipolar perception began to take root. On one side were the intellectuals and other vocal critics of the new regime, representing a broad and diverse opposition. On the other side were the miners, emblematic of the working class under socialist criteria, who positioned themselves as defenders of the NSF and the status quo.

This polarization reflected deeper social and ideological divides, further complicating Romania's fragile transition to democracy. The miners' riot and its aftermath thus became a turning point, not only in the political struggle of the time but also in shaping the mental frameworks and allegiances of Romanian society during this tumultuous period.

The Electoral Race and the Emergence of University Square Protest

In April 1990, the political landscape was further defined by the announcement of presidential candidates. Ion Iliescu emerged as the candidate from the NSF, while Ion Rațiu represented the NPCDP. The race for the presidency officially began, intensifying political tensions across the country.

On April 22, 1990, NPCDP organized an electoral rally in which demonstrators chanted slogans that served both as political declarations and critiqu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Notable chants included: “Iliescu – don't divide the country,” “16-22, who shot at us,” “Iliescu, don’t forget that the youth doesn’t want you,” “Wake up Romanians, you have masters again,” and “on’t be afraid, communism is falling.”[7]. These slogans reflected widespread discontent with the new political order, as the protesters feared a return to one-party rule.

Following the rally, some of the demonstrators proceeded to University Square, where they would remain for several weeks, attracting a growing number of supporters. The chants there shifted to more impassioned calls for political change, such as “Yesterday we were hooligans, today we are bullies,” “The sleep of reason gives birth to monsters,” “Today in the capital, tomorrow in the whole country,” “Freedom, we love you, we either win or die,” “We are not going home, the dead will not leave us,” and “We will die and we will be free.”[8].

The protesters in University Square were primarily students and intellectuals who aimed to draw attention to the dangers of allowing the political scene to be dominated once again by a single party. This movement, which gradually gained momentum, became a symbol of resistance to what was perceived as a potential reassertion of communist-era politics under the guise of the new

7) Ruxandra Cesereanu, *Fenomenul Piața Universității 1990*, senspolitic.ro (publicat pe 10 iunie 2022).
8) *Ibidem*.

government.

In this context, intellectuals, including poets, actors, writers, and professors, took center stage, publicly expressing their views on what Romania’s new democratic future should look like. They debated the restructuring of political power, the essential role of democracy, and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society. This public intellectual engagement became a crucial aspect of Romania’s post-revolutionary political discourse, symbolizing the intellectual opposition to the new political establishment and advocating for a more pluralistic, democratic society.

In the wake of the public demonstration in University Square, Ion Iliescu’s initial reaction was to label the protesters as a group of “hooligans” who were causing disorder in the city. Since many of the meetings he l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Provisional Council were broadcast on Romanian Television, this characterization quickly reached the protesters’ ears. During this brief period, the NSF developed an anti-elitist discourse, which, rather than diffusing tensions, exacerbated the situation and contributed to its further radicalization[9].

The response from the demonstrators in University Square was swift and resolute. They began to alter their slogans in defiance of Iliescu’s accusation: “We are hooligans! For 45 years!”, “Iliescu, don’t forget, the country is not your estate.” Large banners were displayed on the Faculty of Architecture building, reading “Faculty of Rascals,” and a song emerged, becoming a sort of anthem for the protest. The chorus, which echoed in the streets, captured the anger and defiance of the protesters: “Better a hooligan than a traitor, / Better a rascal than a dictator, / Better a hooligan than an activist, / Better dead than a communist!” These slogans aimed to establish a spiritual and moral continuity between the protesters of April 1990 and those who had risen up in December 1989. Some of the chants used in University Square had, in fact, been voiced during the revolution as well,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two movements[10].

The protesters in University Square were predominantly students, professors, and intellectuals, with artists also joining the movement. This configuration of the opposition framed the protest as a rallying point for young people and humanist intellectual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dissident elite from the former regime and those who had suffered under the early years of communist repression. As such, the protest highlighted a growing division between the NSF, seen as a political structure still in power, and the opposition, represented by parties like the PNȚCD and the NLP.

The image of the NSF as a revolutionary force that had brought down communism began to lose credibility. Increasingly, the NSF was viewed as the heir to the communist regime rather than its destroyer. This shift in perception further fueled the protesters' demands, culminating in the

9) Silviu B. Moldovan, *Noul guvern și reconcilierea cu elitele*, în „Xenopoliana”, anul 4, 1996, nr. 1-4, p. 36.
10) Ruxandra Cesereanu, *Fenomenul Piața Universității 1990,* senspolitic.ro (publicat pe 10 iunie 2022).

chant heard once again in the spring of 1990: “Down with communism!”.

In the initial weeks of the protest, there was a noticeable attempt among the demonstrators to recreate the solidarity between intellectuals and workers. Speeches were delivered emphasizing this unity, and prominent intellectuals such as Lucian Pintilie, Stelian Tănase, Radu Filipescu, Octavian Paler, Ana Blandiana, Gabriel Liiceanu, and Ovidiu Iuliu Moldovan, among others, spoke on behalf of the crowd. The atmosphere in University Square, although charged with political tension, was relatively peaceful, marked by a creative emulation. A religious dimension was also present, as priests and nuns joined the protest, and an icon was displayed on the University Balcony. The protesters began referring to University Square as the “Neocommunism-Free Zone.”[11].

Despite these efforts to foster solidarity and bridge the divide between intellectuals and workers, the sense of social and political segregation persisted. Some of the protesters in the Square tried to diminish the rift between young people, intellectuals, and the broader population by advocating messages that emphasized social unity and framed the protest as a civic stance against a power structure with radical and abusive tendencies. However, this perception of division remained evident throughout the protest. This situation is somewhat paradoxical in the context of post-communist Romania, as, under the previous regime, intellectuals were largely seen as being in opposition to political power, with humanists often perceived as perpetual dissenters—critical thinkers but not necessarily pragmatic. However, after 1989, the first group to engage with political power came from the intellectual elite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world[12].

The researcher Ovidiu Ivancu observes that there was a natural overlap in the collective mentality of the transition between the humanists who covered, at least vocally, the post-Revolution landscape and the concrete situation of Romania. Furthermore, historian Silviu Moldovan argues that the schism between the humanist and technical intelligentsia, which resurfaced in the early 1990s, was largely the result of the significant number of writers and journalists who took critical positions against the NSF government[13].

We can extend this idea further by asserting that the perception of authority and the way society was divid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ians was a legacy of the socialist mindset—one that had been radicalized, paradoxically, in comparison to the actual social realities in Romania before 1989. Beyond the material difficulties endured by much of the populat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intellectuals had, in fact, a relatively amicable relationship with the political power starting in the 1960s. The cultural and artistic environment, if we set aside the broader context of the socialist regime, experienced a period of upward development, largely due to several

11) Ruxandra Cesereanu, *Fenomenul Piața Universității 1990,* senspolitic.ro (publicat pe 10 iunie 2022).
12) Ovidiu Ivancu, *Intelectualul român în tranziție. Poziționări după 1989*, în *Studia Romanica Posnaniensia*, vol. 41/2, Poznan, 2014, pp. 3-4.
13) Silviu B. Moldovan, *Noul guvern și reconcilierea cu elitele*, în „Xenopoliana”, anul 4, 1996, nr. 1-4, p. 36.

key factors: the expansion of television, cultural exchanges with the Western world in the 1960s and 1970s, and the regime’s nationalist course, which promoted art inspired by historical and national themes. This allowed intellectuals to reconnect with Romanian national values, which had been overshadowed in the 1950s.

Nevertheless, the worker and the technical intellectual remained the regime’s preferred social categories. Even social uprisings were framed within the same socialist rhetoric—workers demanding better wages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This ideological framework, which was rooted in the worker-centered rhetoric of the socialist regime, continued to influence the political discourse of the post-revolutionary period, despite the changes brought by the 1989 Revolution[14].

Returning to the events of April 1990, the representatives of the protesters in University Square requested a meeting with President Ion Iliescu to address several key issues: ensuring the free circulation of information in the media; authorizing independent radio and TV stations; ending pressures on the media; dismissing the generals responsible for the repression of April 24 in University Square; appointing a civilian Minister of the Interior; bringing to justice the military personnel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volved in the December 1989 repression; completing statements regarding membership in the Communist Party (PCR), the Union of Communist Youth (UTC), Ministry of the Interior (M.I.),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Ap.N.); and adopting Point 8 of the Timişoara Proclamation[15]. Several intellectuals, including Ion Caramitru, Mircea Dinescu, Andrei Pleşu, and Dan Hăulică, approached Ion Iliescu for dialogue. However, despite discussions, no concrete or satisfactory solutions were reache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demonstrations continued during the elections and even after the May 1990 elections, though their nature evolved. After the elections, the situation changed, and the context in which the protesters continued their presence in University Square required a new analysis. While the protests in April were framed as a reaction to the actions of the NSF, post-election protests increasingly questioned the legitimacy of the free vote. The composition of the protesters had also changed compared to April, and the range of issues they addressed

14) For example, the miners' strike in the Jiu Valley in 1977, which was one of the regime's largest uprisings, apart from the one in Braşov in 1987, and was triggered by the adoption of a recent law that abolished disability pensions for miners and raised the retirement age from 50 to 55 years.

15) Timişoara Proclamation adopted on March 11, 1990, was a programmatic document that accuse that the ideals of the December 1989 Revolution had been betrayed, but the revolutionary changes had to continue peacefully. Point 8 of the proclamation stated that the right to run for state office should be prohibited, by electoral law, for three legislative terms to all former activists and Securitate officers. It specifically targeted the position of President of Romania. But the Proclamation also specified that the mere quality of party membership was in no way considered a fault. Immediately after the drafting of the Proclamation, manifestations of adhesion appeared from the population and various organizations. Signatures of adhesion were collected and demonstrations of support and adhesion were held in numerous cities of the country.

diversified. Thus, the dynamics of the protests and the subsequent miners' riots after May 1990 warrant a separate, detailed analysis.

Although the May 1990 elections were labeled in the press as the "Sunday of the Blind," I believe they marked several important and even spectacular moments for the legitimization of democracy in Romania. First and foremost, these elections were a clear manifestation of the basic principle of democracy: free elections, where individuals could express their will as they saw fit. Secondly, voter turnout was impressive, with 86.19% of the population participating, and more than 70 political parties and groups contesting the parliamentary elections, alongside independent candidates.

While the political landscape in 1990 was dominated by a bipolar system, with a stark asymmetry between the FSN[16] and the historical parties such as NPCDP[17], NLP[18], Romanian Social Democrat Pary (RSDP)[19], the sheer number of new political parties emerging in the month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old regime, along with the eagerness of individuals to engage in political life, signaled a clear commitment to a democratic future.

Additionally, although the new party system was initially characterized by the FSN's dominant control over both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this was not accompanied by a corresponding institutional balance[20]. Over time, however, the tendency of the party system began to shift toward moderating this systemic imbalance, signaling a move towards a more democratic and pluralistic structure[21].

I would like to highlight a few more aspects regarding the definition and formation of the political opposition after the May 1990 elections. On December 15, 1990, the leaders of the NLP, NPCDP, PSDRRSDP, PER, and UDMR signed the founding document of the "National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NCED), which became the Romanian Democratic Convention (RDC) on November 26, 1991. Later, the Civic Alliance Party also joined the alliance, with the leadership of NCED being provided by Corneliu Coposu, the president of NPCDP. The declared objectives in the founding protocol of the Convention were "the establishment of a deeply democratic society, the establishment of truth in all areas of public life, a climate of understanding, tolerance, social harmony, and authentic patriotism." Additionally, the signatory parties of the alliance maintained their individual identity, Statutes, and their own political

16) NSF won 67,02% from Parlament votes and 1 place on President.
17) Christian Democratic National Peasants' Party, won 2,45% from Parlament and 3 place on Presidential with Ion Rațiu.
18)NLP gain 7,06% in Parlament and 2 place on President election, with Radu Câmpeanu.
19) Romanian Social Democratic Party won 1,1 on Parlament.
20) Radu Alexandru, Daniel Buti, T*rei decenii de alegeri. Dinamica sistemul de partide în România postcomunistă (1990-2020*), în „Sfera Politicii", nr. 205-206/2020.
21) Ibidem.

programs. One year later, on November 21, 1991, the parties from the National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and other political formations from the Romanian Anti-Totalitarian Democratic Forum decided to form the electoral coalition, the Romanian Democratic Convention (RDC)[22].

Only in the 1992 elections did the political force of the opposition become more evident, marking a shift away from the bipolar thinking paradigm that had influenced the electorate up until that point. Although the elections were still won by Ion Iliescu, American observers noted in their reports that the political landscape had changed dramatically on the local elections from February 1992. „The Democratic Convention of Romania (CDR) had established itself as a strong and viable opposition coalition of fifteen parties and civic organizations, providing a clear alternative to the policies of the incumbent government. The CDR's electoral victories in February and again in September 1992 gave reason to hope that multi-party competition could become a durable fixture of Romania's political process”[23].

Conclusion

As paradoxical as it may seem, right after the revolution, the process of regrouping and the creation of new political parties led to a trend of radicalization, a sort of “class struggle”: humanist intellectuals, who became the critical voice against the provisional government represented by the FSN, and the FSN, mainly supported by workers who came to Bucharest specifically to help restore political order.

Although the demonstrations of the population and the involvement of intellectuals in these protests as opinion leaders did not have an immediate influence on the political factors — meaning there were no resignations or restrictions on candidacies — it certainly raised alarms and drew the political power's attention to the need for more transparent and honest communication with society and the creation of policies that would address society's needs.

On the other hand, this process, marked by violence and discontent, also shaped the formation of the opposition, which, at least in the early stages, embraced this anti-communist or anti-totalitarian discourse out of fear of regressing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liberal

22) The Romanian Democratic Convention (RDC) was later joined by the National Liberal Party - Democratic Convention (April 1992), the National Liberal Party - Youth Wing (June 1992), and the Romanian Ecologist Federation (August 1992) (*Agerpres, published on December 15*, 2020, agrepres.ro).

23) *Report on Romania's Democratic Transition*, made by The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 and the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NDI), page 4. (www.aceprojec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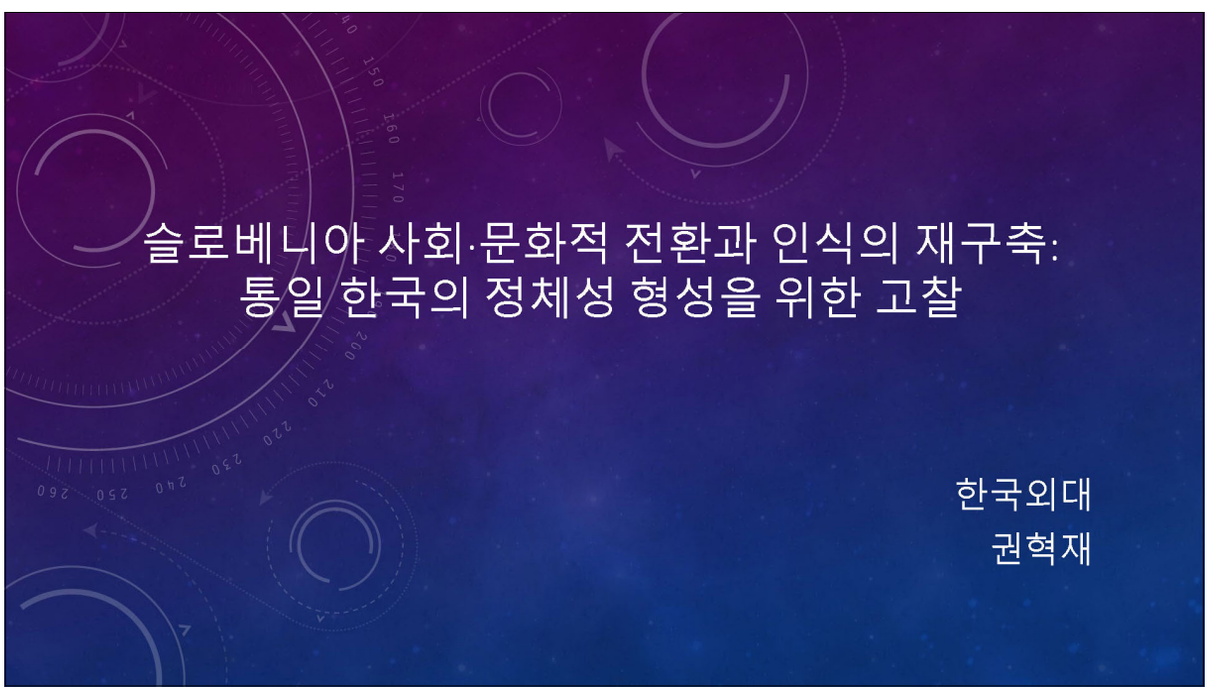
democracy.

Lastly, a much clearer image of an active civil society emerged, one that sought real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 which remained skeptical about the authenticity or goodwill of political structures, and this would make it always vigilant, ready to critique and amend the implemented policies.

발 표

슬로베니아 사회·문화적 전환과 인식의 재구축: 통일 한국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고찰

권혁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개요

- 1991년 사회주의 체제로 부터 자유주의 체제로 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는 통일 이후 한국이 마주할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 슬로베니아는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이하 구유고연방)의 해체와 독립 이후,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했다.
- 분단 이후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 과제와 유사한 도전과제를 예상할 수 있다.
- 슬로베니아의 사회·문화적 전환과 인식의 재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 한국이 맞이하게 될 사회·문화적 정체성 도전과 과제를 분석한다.
- 슬로베니아의 체제 전환 사례를 토대로 통일 한국에 적용가능한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 방안을 제안한다.
- 연구는 크게 1) 슬로베니아의 사회·문화적 전환과 인식 재구축, 2) 통일 한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 과제, 3) 슬로베니아 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한다.

슬로베니아 정체성 역사: 카란타니아(CARANTANIA) 정체성

- 카란타니아(Carantania)는 6세기부터 8세기까지 현재의 슬로베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초기 슬라브 공국으로 슬로베니아 정체성 형성의 역사적 기초로 자주 사용된다.
- 카란타니아는 슬로베니아 민족의 독립성과 자치적 전통을 상징하며 현대 슬로베니아의 역사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 자치와 독립의 상징: 카란타니아는 독립적인 정치 체제와 슬라브 전통을 기반으로 한 자치적 공국으로 운영했으고 이는 슬로베니아가 독립적 민족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 상징적 의식: 카란타니아에서는 민중이 참여하는 지도자 선출 의식이 존재하였고 이는 슬로베니아의 민주적 전통과 민족적 자부심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 역사적 해석: 카란타니아의 전통은 슬로베니아 민족주의 담론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되고 현대 슬로베니아 정체성의 초석으로 기능한다.
- 카란타니아는 현대 슬로베니아인들에게 자율과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이며 독립적 민족 국가로서의 슬로베니아 정체성에 중요한 역사적 기반을 제공한다.

슬로베니아 정체성 역사: 종교개혁

- 종교 개혁은 슬로베니아 정체성이 언어와 종교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초기 민족적 정체성이 강화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
- 슬로베니아어의 문어화와 정체성: 1550년 트루바르(Primož Trubar)의 슬로베니아어로 된 첫 번째 책 Catechismus와 Abecedarium은 슬로베니아어를 종교적 의식과 교육의 중심 언어로 만들며 슬로베니아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한다.
- 슬로베니아 문해력의 확산: 종교 개혁은 슬로베니아어로 된 문서와 서적의 출판을 촉진하고 슬로베니아 지역 주민들의 문해력을 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종교적 갈등의 심화: 가톨릭 교회의 반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 으로 신교의 영향력은 제한된다.
- 반종교개혁의 영향: 17세기에 접어들면서 가톨릭 교회는 종교적 우위를 회복하고 슬로베니아 사회에서 신교의 쇠퇴로 이어진다. 이 시기의 종교적 다양성은 슬로베니아 정체성에 중요한 흔적을 남긴다.
- 슬로베니아 민족의식의 발달: 슬로베니아어 사용과 교육은 슬로베니아 민족 정체성의 초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교적 동기에서 시작된 슬로베니아어의 발전은 이후 민족주의 운동과 연결되며 민족적 자각의 토대가 된다.
- 지역 정체성과의 결합:종교 개혁은 슬로베니아 내 다양한 지역적 정체성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며, 민족 단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슬로베니아 정체성 역사: 합스부르크

- 18세기 합스부르크 제국 시기는 슬로베니아 정체성이 새로운 방식으로 형성되고 강화된 중요한 시기이다.
- 계몽주의와 중앙집권적 개혁은 슬로베니아의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계몽주의 개혁과 교육: 합스부르크 제국은 의무 초등 교육을 도입하여 교육 체계를 현대화 한다. 교육을 통해 슬로베니아어가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었고 행정 언어는 독일어로 변경된다. 이는 슬로베니아 지식인에게 언어와 민족 정체성 보존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만든다.
- 슬로베니아 민족 정체성의 초기 형성: 계몽주의와 민족적 자각의 영향을 받아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 노력이 시작된다.
- 민속과 지역 정체성의 강조: 민속적 전통과 공동체 중심의 삶이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다. 이는 독일화의 압력 속에서 슬로베니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즉, 18세기 합스부르크 제국 시기는 독일화와 중앙집권적 개혁 속에서 슬로베니아 민족 정체성이 위협받는 시기였고 동시에 계몽주의와 교육을 통해 민족적 자각과 언어 보존 노력이 시작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 이 시기의 경험은 슬로베니아 민족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 현대적 정체성 형성의 밑거름이 된다.

슬로베니아 정체성 역사: 유고슬라비아왕국

- 슬로베니아는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 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1929년부터 유고슬라비아 왕국)에 통합되며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도전에 직면한다. 이 시기는 슬로베니아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간의 긴장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 통합 초기의 기대와 좌절: 슬로베니아는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소수 민족으로 억압받던 경험을 뒤로하고 같은 남슬라브 민족과의 통합을 통해 자율성과 독립을 기대한다. 그러나 세르비아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의 강화는 슬로베니아의 문화와 정치적 자율성을 위협한다.
- 문화적 정체성 보존 노력언어와 교육의 보호: 슬로베니아어는 왕국 내에서 공식 언어로 인정되었지만 세르비아어의 우위가 점차 강화된다. 슬로베니아 지식인은 언어와 교육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한다.
- 종교와 전통의 중요성: 슬로베니아는 가톨릭 신앙이 강한 지역으로 종교적 전통은 슬로베니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슬로베니아 정체성이 민족적 자율성과 중앙정부의 통합 사이에서 생존과 조정을 시도하던 중요한 시기였다.

슬로베니아 정체성 역사: 구유고연방

- 민족 정체성과 사회주의 정체성 간의 균형: 구유고연방은 사회주의 이념 아래 모든 구성 공화국의 평등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르비아가 주도하는 연방이었다.
- 슬로베니아는 사회주의 경제와 이념을 수용했지만 민족적 자율성과 고유 문화를 보존고자 하였다.
- 민족 정체성 유지 노력: 슬로베니아어를 공용어로 유지하며 교육과 문화를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했다.
- 슬로베니아의 가톨릭 전통은 세속적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약화되었지만 민족적 유산으로 간주되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문학과 예술의 부흥: 슬로베니아 작가와 예술가들은 연방 내에서 슬로베니아의 독특한 문화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슬로베니아어 문학과 민속학이 발전하며 이를 통해 독자적인 슬로베니아 민족 정체성을 강화한다.

슬로베니아 정체성 역사: 체제전환기

- 체제 전환기는 슬로베니아가 구유고연방의 일부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독립된 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 이 시기 슬로베니아의 정체성은 민주화 운동, 경제적 자율성 요구, 민족주의 부흥의 세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 민주화 , 경제적 자율성 , 민족주의가 결합되어 슬로베니아의 독립과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기반을 만든다.
- 1991년에는 독립 선언을 통해 슬로베니아가 연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어진 10일 전쟁에서 슬로베니아는 군사적 충돌 속에서도 독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 유럽 중심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 독립 이후 슬로베니아는 자신을 발칸과 구분된 유럽 국가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수용에 집중한다.
- 슬로베니아는 이 시기를 통해 민족적 자부심과 유럽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독립 국가로의 정체성 전환에 성공한다.

슬로베니아 정체성 역사: EU 가입

- 슬로베니아의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은 국가 정체성 변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 슬로베니아에게 EU 가입은 발칸 지역과 구별된 유럽 국가 목표를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다.
- EU 가입은 슬로베니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 EU 가입은 문화적 정체성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슬로베니아는 EU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정책 아래에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홍보할 기회를 얻는다.
- 그러나 동시에 EU의 다국적 정체성은 슬로베니아의 민족적 정체성과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
- EU 가입은 국가 정체성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와 유럽적 가치를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였지만, 민족 정체성과 유럽 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도전도 동반했다.
- EU 가입은 슬로베니아가 더 큰 공동체의 일부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로 평가된다.
- EU 가입은 슬로베니아가 유럽적 민족 국가로 진화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슬로베니아 사회·문화적 정체성: 현재

- 현재 슬로베니아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은 민족적 전통, 유럽적 정체성, 글로벌화의 영향을 결합한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 전통과 현대성이 공존하며 민족적 자부심과 유럽적 정체성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균형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 슬로베니아는 소규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언어와 문화, 풍부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슬로베니아의 역사적 경험, 유럽연합(EU) 가입 이후의 변화,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 슬로베니아는 슬로베니아어를 중심으로 한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슬로베니아어는 국가의 공식 언어로, 교육, 문학, 언론 등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고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이다.
- 전통적인 가톨릭 신앙이 여전히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슬로베니아는 유럽적 정체성을 수용하며, 발칸보다는 중부유럽으로 평가 받고자 한다.

슬로베니아 사회·문화적 정체성 특징

- 현재의 슬로베니아 사회·문화적 정체성은 전통적 민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유럽적 가치와 세계화를 수용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발전했다.
- 슬로베니아는 소규모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통해 유럽 및 세계 속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 이러한 정체성은 슬로베니아가 과거와 현재, 지역성과 글로벌화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민족적 정체성과 유럽적 정체성의 융합
- 글로벌 정체성 강화
- 환경과 지속 가능성 강조
- 정체성의 다층화
-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 정체성의 상징화

HOFSTEDE 문화 차원 지표로 본 슬로베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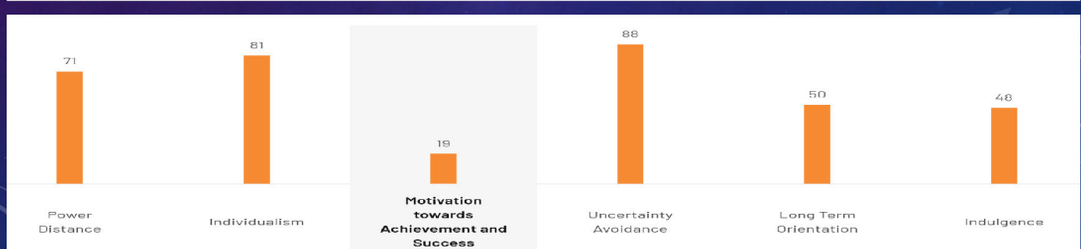
- Hofstede의 문화 차원 이론은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수량화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https://www.theculturefactor.com/country-comparison-tool
- 권력 거리(Power Distance:PDI)는 권력의 불평등을 수용하고 정당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높은 권력 거리를 가진 문화는 위계질서를 존중하고 수직적 구조를 선호한다.
-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Individualism vs. Collectivism)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지, 집단의 조화와 상호 의존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문화를 구분한다.
- 성취와 성공을 향한 동기(Motivation towards Achievement and Success)은 성취와 경쟁을 중시하는지, 삶의 질과 협력,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반영한다.
-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규칙과 구조를 통해 대응하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 장기 지향 대 단기 지향(Long-Term Orientation vs. Short-Term Orientation)은 미래를 위해 인내와 계획을 중시하는지 전통과 현재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 쾌락 지향 대 절제 지향(Indulgence vs. Restraint)은 개인의 욕구와 즐거움을 얼마나 충족시키려 하는지, 사회적 규범과 규율을 얼마나 준수하려 하는지를 기준으로 문화를 구분한다

슬로베니아 HOFSTEDE 지표의 변화

Table 2. The projected positions of Croatia, Slovenia and Serbia on four dimensions based on original results for ex Yugoslavia, calculation done in by G. Hofstede, 1991.

	PDI *(power distance index)*	UAI *(uncertainty avoidance index)*	IDV *(individualism index)*	MAS *(masculinity index)*
CROATIA	71	80	33	40
SLOVENIA	73	88	27	19
SERBIA	86	92	25	43
EX YUGOSLAVIA	76	88	27	21

Source: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u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Second Edition, Sage Publications, Thousand Oaks, CA, pp. 45-46, 501.



남북한 HOFSTEDE 지표

	PDI (Power Distance)	IDV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MAS (Motivation towards Achievement and Success	UAI (Uncertainty Avoidance	Long-Term Orientation vs. Short-Term OrientationLTO	IVR (Indulgence vs. Restraint)
남한	60	58	39	85	86	29
북한	80-90	10-20	60-70	80-90	70-80	10-20

지역 정체성 & 국가 정체성

- 지역 문화 정체성: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언어, 전통, 역사, 가치관, 예술, 종교, 사회적 관습과 같은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형성된 집단적 자아 인식과 소속감
- 지역 문화 정체성은 역사적 경험과 현대 사회적·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 국가 정체성: 특정 국가의 국민이 공유하는 집단적 소속감과 자아 인식
- 국가 정제성은 언어, 문화, 역사, 정치 체제, 상징물(국기, 국가 등), 가치관과 같은 공통 요소를 통해 형성되며 개인과 집단이 자신을 특정 국가의 일원으로 여기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기반이 된다.
- 지역 문화 정체성과 국가적 정체성은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고 한 국가의 사회적·정치적 통합과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 지역 문화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지만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과 정체성

- 집단적 기억은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과 그 해석을 의미한다.
- 역사적 사건과 상징: 과거의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 기념물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 집단 정체성의 형성: 기억은 개인의 정체성을 집단적 정체성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 사회적 구성: 기억은 집단의 필요와 맥락에 따라 구성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 체제전환 이후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 변화:

✓ 슬로베니아에서의 집단적 기억은 구유고연방 시절의 다민족적 정체성과 독립 이후의 민족적 정체성을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 독립 이후 구성된 새로운 기억은 슬로베니아의 민족적 자부심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에서 유럽 시민 정체성을 수용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 이는 집단적 기억이 단순히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 과제와 정책

- 주요 과제

✓ 민족 정체성과 유럽적 정체성 간의 균형

✓ 발칸 정체성과 유럽 정체성의 분리

✓ 사회주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 간 갈등

✓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

✓ 문화적 정체성 보존과 다문화 정체성 수용

✓ 사회적 통합

- 핵심 정책

✓ 슬로베니아어 보호법 제정, 전통문화 홍보, EU 공식 언어 등록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 확립

✓ 국영 기업 민영화, 유로화 도입(2007년), 사회적 안전망 유지

✓ 전통 문화 재해석, 관광 자원화, 문화유산 보존

✓ 소수민족 권리 보장, 다문화 교육 강화.

통일 한국의 사회·문화적 도전

문화적 차이와 정체성 혼란

언어와 표현 방식	사회적 책임 의식
문화적 상징과 생활 방식	통일의 책임 공유
국가 정체성 형성 과제	다문화 수용
지역문화정체성과 국제적 인식 전환	공동체 의식 형성

정치적·이념적 전환

경제적 인식 전환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

문화적 차이와 정체성 혼란

인구와 사회 구조 변화

환경 및 지역 개발 문제

국제적 정체성과 외교 과제

슬로베니아 사례의 시사점

- 통일 이후 한국은 단순히 물리적·정치적 통합을 넘어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조화와 통합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남북한은 분단 이후 7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적 경험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했고 통일 이후 이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새로운 통합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남북한의 이질적 정체성 통합: 집단적 기억을 기반으로 한 국민적 통합
- 사회·문화적 차이와 갈등 해소: 언어와 문화의 융합을 통한 정체성 강화
- 지역 문화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지역 문화 정체성 역할 분배와 국가 정체성 통합
- 국제적 정체성과 글로벌 통합: 글로벌 평화 모델 로서의 정체성
-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 "녹색 슬로베니아" 캠페인
- 미래 세대와의 연결: 통일 정체성을 주도하는 플랫폼의 전승

발 표

헝가리 대전환 경험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문화지체와 사회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상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I. 들어가는 말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전환을 경험하며 새로운 체제와 가치에 적응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오랜 분단을 겪은 지역에서의 통일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의 포괄적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와 문화, 그리고 오랜 분단으로 인해 형성된 격차를 극복해야 하는 대전환의 과정을 수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헝가리의 체제전환과 유럽연합(EU) 가입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은 통일한국이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도전 과제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헝가리는 1989년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루었고, 2004년 EU에 가입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물질문화(기술, 경제 구조 등)의 변화 속도가 빠른 반면, 비물질문화(가치관, 규범, 제도 등)는 느리게 변화하여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민주주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 헝가리 국민들이 적응해야 했던 새로운 가치와 전통적 사고방식 간의 충돌은 문화지체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체제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도전 과제를 잘 드러낸다.

본 발표는 헝가리의 체제전환 경험과 EU 가입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지체 현상을 중심으로 이를 통일한국의 대전환 과정에 적용 가능한 교훈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헝가리 사례를 통해 남북한 체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반도의 통일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를 통해 우리가 헝가리 사례를 거울삼아 통일한국의 문화지체 극복 전략을 논의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문화지체 현상

헝가리가 20세기 후반 두 차례의 대전환을 겪으면서 나타난 문화지체 현상은 헝가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헝가리 국민들이 새로운 체제와 가치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충돌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1)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가치 충돌

헝가리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국가가 경제를 전반적으로 통제하며 안정성을 보장하던 구조에 익숙한 사회였다.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가 해체되었고, 대신 개인주의와 경쟁을 강조하는 서구적 가치관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민영화와 경제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많은 국민이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국민들은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에서 주어진 기회와 도전에 적응해야 했지만, 국가가 주도하던 안정성을 중시하던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더불어,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부유층이 등장하는 한편, 많은 노동 계층이 빈곤에 빠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불공정하다는 인식과 함께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며 헝가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민주주의와 정치적 문화의 변화

헝가리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단일 정당의 지배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정치적 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치적 자유와 참여가 강조되었지만,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초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투표율이 낮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도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냉소주의로 이어져 민주주의 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험했던 안정성을 기억하는 일부 세대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가져온 불확실성과 혼란을 부정적으로 여겼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정책과 체제를 지지하며, 이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정치 세력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3) 유럽연합 통합과 정체성 혼란

헝가리는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며 서유럽 중심의 국제 사회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문화적 적응과 정체성 혼란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헝가리의 전통 문화는 유럽의 서구적 가치와 충돌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헝가

리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특히, 일부 국민은 EU의 규제와 정책이 헝가리의 전통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느끼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또한, EU 가입은 헝가리가 국제적 가치와 기준을 수용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일부 국민들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며 EU의 개입을 비판했다. 이러한 정서가 확산되면서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극우 정치 세력이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III. 사회적 갈등

(1) 세대 간 갈등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세대 간에 뚜렷한 가치관 차이와 갈등이 나타났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체제의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반면, 기성세대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을 우려했다. 특히, 사회주의 시대의 안정된 직장과 복지에 익숙했던 기성세대는 실업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체제 전환 이후 헝가리의 실업률은 1990년대 초반 급격히 상승하여 1993년에는 약 12%에 달했다. 이러한 실업률 증가는 주로 기성세대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들은 새로운 시장경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젊은 세대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경제적 경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졌다. 젊은 세대는 개인주의와 경쟁을 수용하며 시장경제의 장점을 활용하려 했지만, 기성세대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누리던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헝가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은 헝가리의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긴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체제 전환 과정에서 세대별로 차별화된 지원과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 도농 간 갈등

헝가리는 체제 전환을 겪으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다. 도시 지역은 외국인 투자와 경제 개발로 빠르게 발전한 반면, 농촌 지역은 이러한 변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커지면서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였다. 헝가리의 도시화율은 1989년 약 60%에서 2000년대 초반 65%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과 경제 활동의 편중을 나타낸다. 이러한 도시화는 도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였지만,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다. 1990년대 헝가리의 1인당 GDP는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약 1.5배 높았으며,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확대되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

득 격차는 생활수준의 차이로 이어졌다. 도시 지역은 교육, 의료, 문화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았던 반면, 농촌 지역은 이러한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생활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격차는 농촌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였으며,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불만은 헝가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헝가리 정부는 농촌 지역의 경제 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3) 정치적 양극화

헝가리는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다당제 민주주의를 도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자유주의 정당과 보수적 민족주의 정당 간의 갈등이 지속되며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였고, 사회주의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력과 이를 완전히 부정하려는 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체제 전환 초기인 1990년대에는 온건한 다당제와 양당제가 유지되며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Fidesz) 정당이 집권하면서 헝가리의 정치 지형은 크게 변모하였다. 오르반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하며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고, 이는 민주 세력과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언론 자유 억압, 민족주의 동원, 반(反)난민 및 반(反)유럽연합 정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헝가리 사회 내에서 자유주의적 가치와 보수적 민족주의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사회주의 시절의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력과 이를 부정하고 새로운 보수적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세력 간의 대립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대립은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하였으며, 헝가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거나 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헝가리의 체제 전환 이후 형성된 다당제 민주주의는 이념적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오르반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며 헝가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

(4) 소수 민족과의 갈등

헝가리는 체제 전환 이후 외국 자본과 이주민의 유입, 그리고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유럽 내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소수 민족과 다문화적 요소에 대한 보수적 세력의 반발이 나타났다. 특히, 로마(Roma, 집시) 인구와의 경제적·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며 차별과 빈곤 문제가 부각되었다. 헝가리 내 로마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적 소외를 겪어왔으며, 체제 전환 이후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다. 2008년에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이는 로마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또한, 극우 정당인 요빅(Jobbik)은 '집시를 치우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지세력을 확산하였으며, 체제 전환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극우 세력의 부상은 로마인에 대한 사회

적 차별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로마인들은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에 시달리고 있으며, 교육과 주거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헝가리 정부는 로마인 대학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헝가리 사회 내 보수적 세력은 소수 민족과 다문화적 요소에 대한 반발을 나타내며, 로마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였다. 이는 로마인들의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저해하고, 헝가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체제 전환과 EU 가입 이후 헝가리 내 소수 민족, 특히 로마인과의 갈등은 경제적·사회적 차별과 빈곤 문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헝가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IV. 문화지체와 갈등의 결과

헝가리는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층과 지역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혼란 속에서 극우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정당이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헝가리와 유럽연합(EU) 간의 정치적 긴장으로 이어졌다. 체제 전환 이후 헝가리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 일부 지역과 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이는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불만을 바탕으로 극우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정당이 부상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집권한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피데스(Fidesz)당은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하며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헝가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였다. 또한 헝가리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EU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과 충돌하였다. 특히, 오르반 총리는 EU의 난민 수용 정책에 반대하며 반(反)난민 및 반(反)EU 정서를 조장하였다. 이로 인해 헝가리는 EU 내에서 '문제아'로 불리며, EU와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는 오르반 총리가 EU의 정책을 '친전쟁'이라고 비판하자, EU는 예정된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부다페스트에서 브뤼셀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헝가리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지체와 그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불만 증가, 극단주의 성장, 그리고 EU와의 마찰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체제 전환 시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적응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V.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화지체 현상과 사회적 갈등

한반도 통일은 헝가리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남북한은 분단 70여 년 동

안 상이한 정치 체제, 경제 시스템, 문화적 가치관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이질성은 통일 이후 다양한 형태의 문화지체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남한 주민들 또한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 관습과 체제 유산을 수용하는 데 도전을 경험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통합을 넘어, 사람들 간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통일한국의 안정적 전환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헝가리의 대전환 경험은 통일한국이 맞이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과제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헝가리의 사례를 통해,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화지체 현상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문화지체의 예방과 완화

(1) 단계적 통합과 점진적 변화

남북한 주민이 서로의 체제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인 문화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문화 교류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속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통일한국에서는 이러한 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북한 주민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경제 교육과 정치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한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문화적 정체성의 조화

남북한의 상이한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며, 공통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양측의 문화를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문화 콘텐츠 교류와 공동제작을 추진하고, 북한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통일한국에서 문화지체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합을 통해 남북한 주민이 서로의 체제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통합적 한국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갈등의 관리

헝가리의 체제 전환 경험은 통일한국이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격차 해소, 세대 간 화합, 정치적 양극화 방지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1) 경제적 격차 해소

헝가리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 계층 간 경제적 격차가 사회적 불만을 증대시켰다. 통일한국에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지역의 경제 개발에 중점을 두고,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 불안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2) 세대 간 화합

헝가리에서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통일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 간의 대화와 화합을 위한 세대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대 간의 경험과 가치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3) 정치적 양극화 방지

헝가리에서는 민주주의 초기 단계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통일한국에서는 정치적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정치적 통합은 모든 계층과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포괄적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중재 기관이나 협치 모델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헝가리의 체제 전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통일한국이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사회적 포용과 소수자 배려

헝가리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자 문제와 정체성 갈등은 통일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헝가리는 로마(집시) 인구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소수자 문제와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이는 소수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와 사회 통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통일한국에서도 경제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에 대한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통일 이후 북한 주민 중 취약 계층이나 소외된 집단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회 통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탈북민, 북한 고위층 출신, 남한 내 저소득 계층 등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지 체계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헝가리가 EU와의 관계 속에서 민족적 정체성과 국제적 정체성 간의 갈등을 경험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통일한국에서는 남북한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정체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동의 역사 교육, 통일된 헌법 제정, 국가적 상징 재설정 등 통합적 정체성 형성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남북한 주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된 국가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소수자와 취약 계층 보호, 그리고 통합적 정체성 형성은 통일한국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헝가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의 도전 과제를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국제 협력과 지원 활용

헝가리는 유럽연합(EU) 가입 과정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체제 전환을 이루었으나, 서구적 가치와의 충돌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통일한국이 국제 사회의 지원을 활용하되, 한국 고유의 가치와 현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진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통일한국은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통해 경제 재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통일 비용 절감과 통일 촉진 측면에서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한국의 고유한 가치와 현실을 반영한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헝가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부의 지원과 압력으로 인한 서구적 가치의 일방적 도입은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한국적 상황에 맞춘 정책 수립과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일한국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이 지역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그레이터 투멘 이니셔티브(GTI)와 같은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연계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통일한국은 주변 4국과의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 과정에 영향을 미칠 주변국의 인식과 국제사회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국제 사회의 지원을 활용하되, 한국 고유의 가치와 현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받는 동시에, 한국적 상황에 맞춘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맺는 말

헝가리의 체제 전환 과정은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변화 속도 차이로 인한 문화지체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경제적·정치적 변화에 비해 사회적 가치와 관습의 변화가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러한 경험은 통일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유사한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적·제도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남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화적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동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 활동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통일한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경제적·정치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 과정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준비는 통일 후 예상되는 문화지체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헝가리의 사례를 교훈 삼아, 통일한국은 경제적 지원, 법적 조정, 문화적 화합, 교육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통합을 이루고,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택 (2003). 동유럽 정치와 민주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지영. (2007). 헝가리 체제전환시기 한국기업의 진출 및 갈등사례를 통해 본 이문화관리 방안 연구. 동유럽발칸연구, 19, 217-245.

김형종 (2001). “체제전환 국가의 문화 변화: 헝가리를 중심으로.” 사회와 문화 11권, pp. 77-102.

유럽사회문화연구회 편 (2015). 유럽과 문화적 전환: 헝가리를 중심으로. 경문사.

이상원 (2006). “헝가리 농업의 전환과 농민들의 대응.” 농업경제연구 44권 1호, pp. 19-36.

정병화 (2010). 헝가리 현대사: 체제전환과 민주주의의 도전. 푸른역사.

조홍식 (2012). 동유럽 민주화와 사회 변화. 후마니타스.

최종찬 (2004). “헝가리의 EU 가입 과정과 경제적 효과.” 국제지역연구 8권 2호, pp. 113-135.

통일부. (2024). 2024 통일교육 기본계획.

통일부. (2024). 2024년 통일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Andorka, Rudolf (1996). A társadalmi változások és az életminőség Magyarországon. Közgazdasági és Jogi Könyvkiadó, Budapest.

Böröcz, József (2001). “Introduction: Empire and the Politic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Social Science Quarterly.

Hankiss, Elemér (1990). Diagnózisok. Magvető Könyvkiadó, Budapest.

Hann, Chris (2002). Postsocialism: Ideals, Ideologies, and Practices in Eurasia.

Pál, Ágnes (2003). “Cultural Transformation in Post-Socialist Hungary.” Hungarian Studies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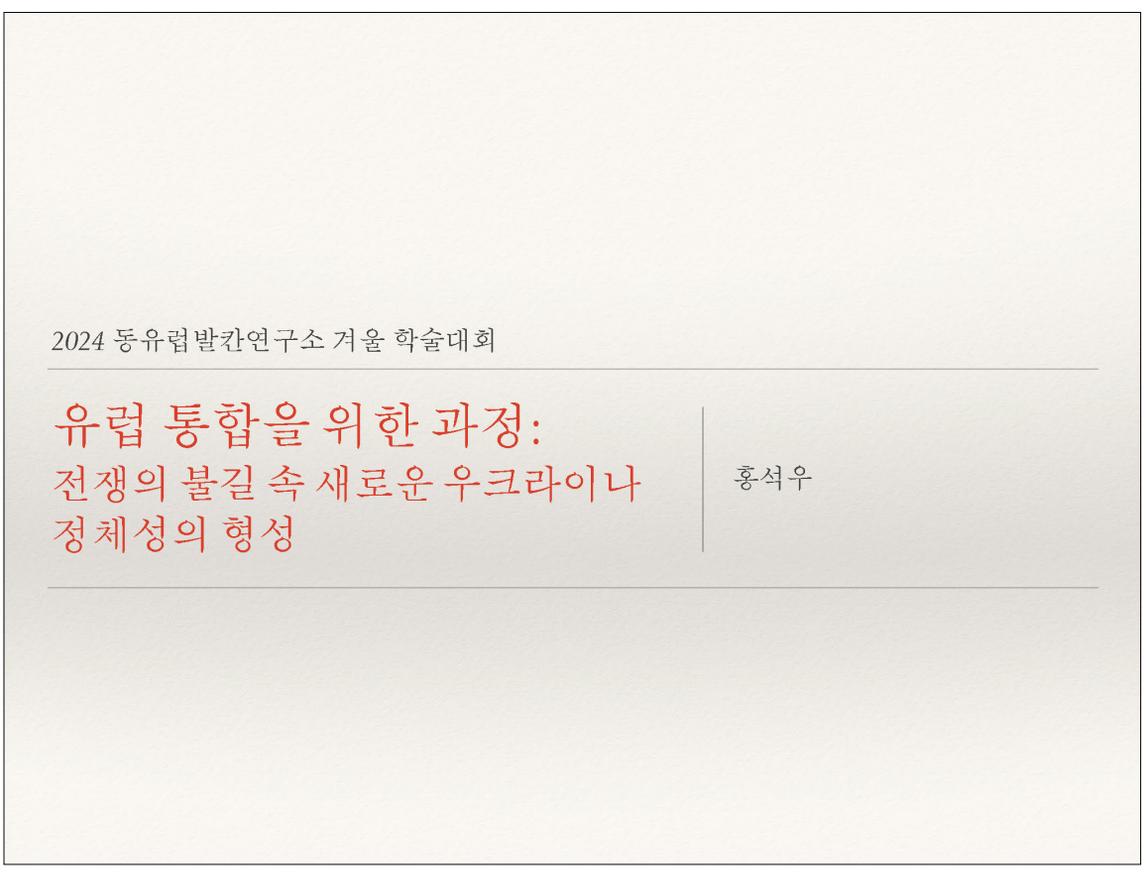
Raiser, Martin et al. (2001). “Social Cohesion, Institutions, and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World Bank Working Paper.

Szelényi, Iván(1995). Posztszocialista átalakulás és társadalmi szerkezet. Szociológiai Szemle, Budap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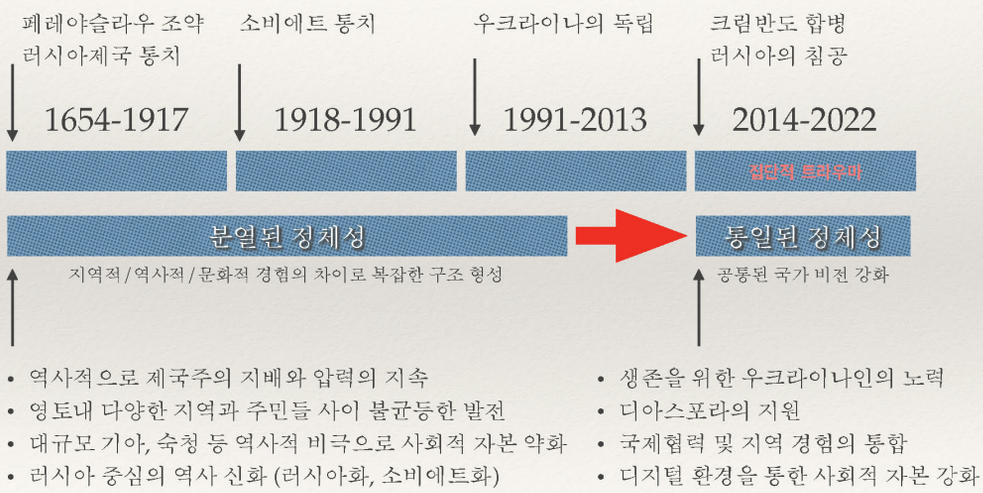
발 표

유럽 통합을 위한 과정:
전쟁의 불길 속 새로운 우크라이나 정체성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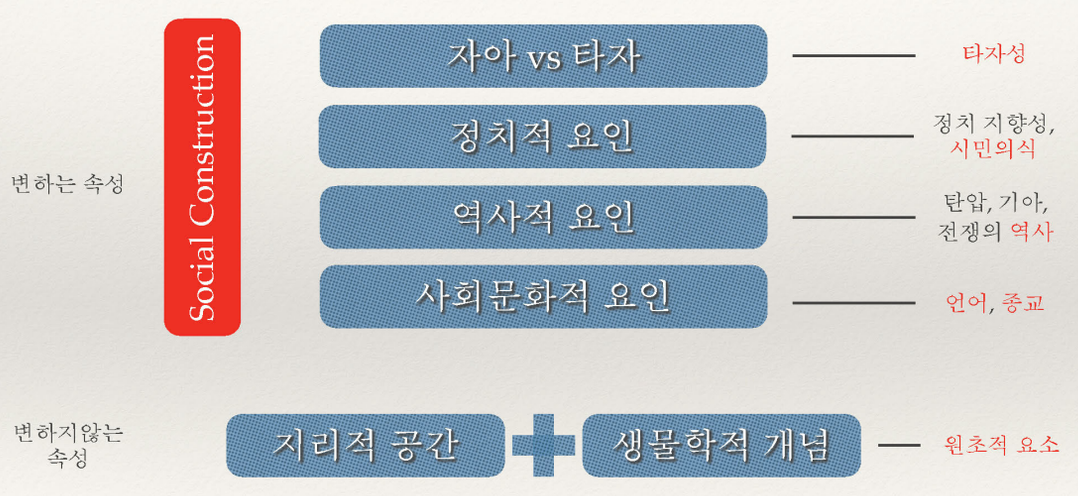
홍석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배경



정체성 (Ide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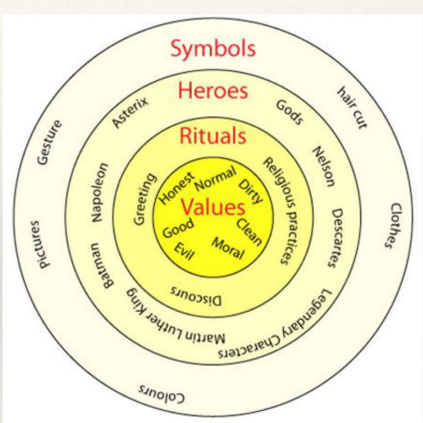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

- 단일한 하지 않은 다면적 경로로 진행
- 전쟁, 혁명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집단적 트라우마가 국가 정체성 형성을 가속화
- 이 과정에서 집단적 상호작용과 경험은 ‘자아(self)’를 새롭게 정의하고 확장 된 정체성 구조로 대체
- 국가 정체성 형성은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 수정된 통합적 정체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2014년 이전의 정체성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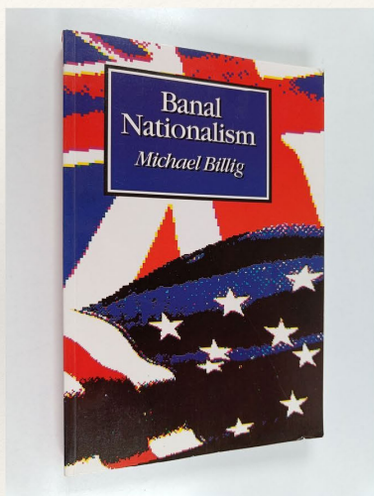
- 1991년 갑작스런 독립으로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 등장한 우크라이나는 독립 국가로 존재해야 하는 명분과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 정체성 확립이 시급
- 러시아 및 소비에트 중심적 역사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국가로 존재 불가능; 내부적으로도 통일된 정체성 부재;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배 엘리트 그룹은 그동안 형제 국가였던 ‘러시아’를 타자로 삼고 ‘우크라이나’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했음
-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상징 체계를 세우며, 영웅과 의례, 가치체계를 새롭게 구축 하면서 민족건설이라는 과업을 수행
- 우크라이나 지배 엘리트들은 이미 존재하는 공동의 산물이나 문화적 특성, 역사적 기억들을 재해석하고, 상징성들을 선별적으로 가져와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작업을 실시
- 즉 러시아와 공유하는 초기 역사시기, 다시 말해 키이우 루스 시기를 재해석, 우크라이나 역사 시기로 편입시키고, 당시의 많은 국가 상징들, 예를 들어 깃발, 문장, 건축 등을 부활시키고, 키이우 루스 공후들의 동상을 세우는 작업을 통해 키이우 루스와 현대 우크라이나의 연속성을 강조



Hofstede’s Cultural Onion Model
(based on http://blog.sylvainliege.com/2009/03/30/cross-cultural-business-who-am-i-really-dealing-with/)

2014년 이전의 정체성 2

-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체성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건설되고, 또한 창조되는 대상으로 인식하며 의도적으로 재구성해 나감
- 미콜라 흐루셰우스키 역사관을 토대로 민족사관(우크라이나 영토내 기원전 역사-키이우 루스-코자크 시대를 잇는 역사관)을 재정립. 이에 맞게 모든 상징들을 재건, 재배치하며 교육을 통해 이를 가르침;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축일, 행사 등을 통해 매일 매일 경험하며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
- 초대 대통령 레오니드 크라우추크로부터 쿠츠마, 유시첸코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를 타자로 삼아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작업을 일관되게 진행
- 이 시기 정체성의 특징 - 1) 정부에 의해 주도, 2) 소위 '평범한 민족주의"(banal nationalism) 형성에 집중; 화폐, 국가(anthem), 국기, 문장, 축일, 기념일 등 상징성을 변화시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려 노력, 3) 통일된 정치의식, 시민의식, 가치체계에 근거한 정체성 재건의 노력은 부족



https://www.finlandiakirja.fi/en/michael-billig-banal-nationalism-1825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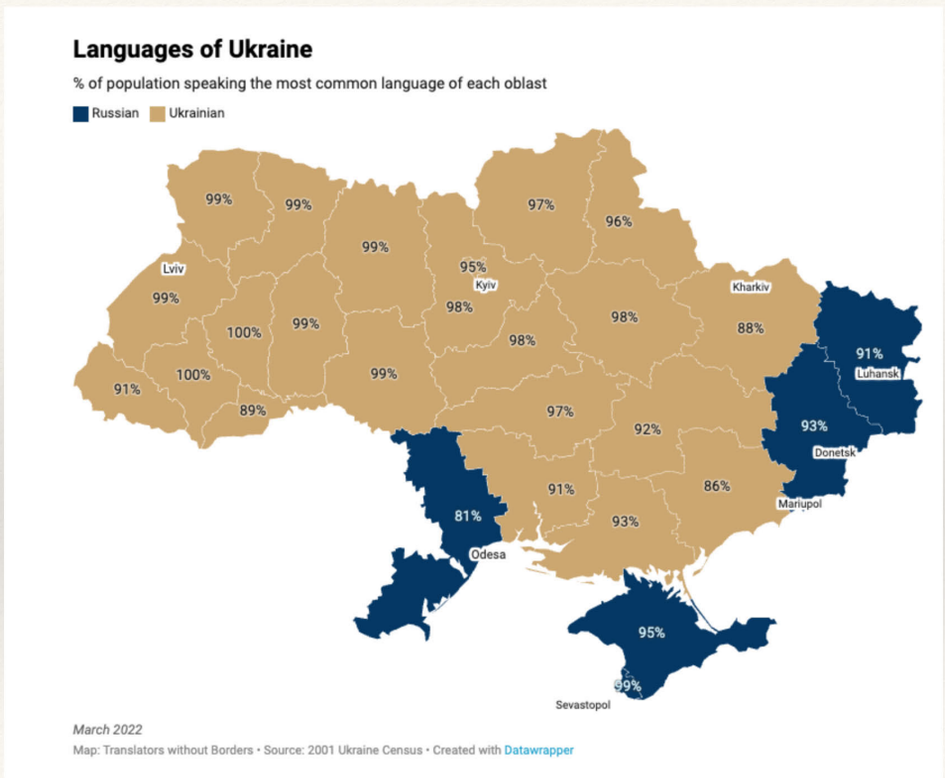
2014년 이후의 정체성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국가 정체성 변화와 형성을 가속화
- 전쟁은 국가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작용 (로보타 콜스)
- 전쟁은 공통의 '위협'을 조성해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의 타자'를 만드는 체계적 과정을 촉진 (알렉산더 웬트)
-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전쟁은 이러한 이론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기회 제공
-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 초기 연설과 지방 및 국가 차원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쟁이 정체성 변화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며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구축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전쟁은 국가 정체성 변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하며, 우크라이나 정체성 형성의 가속화와 재구성을 이해하는데 핵심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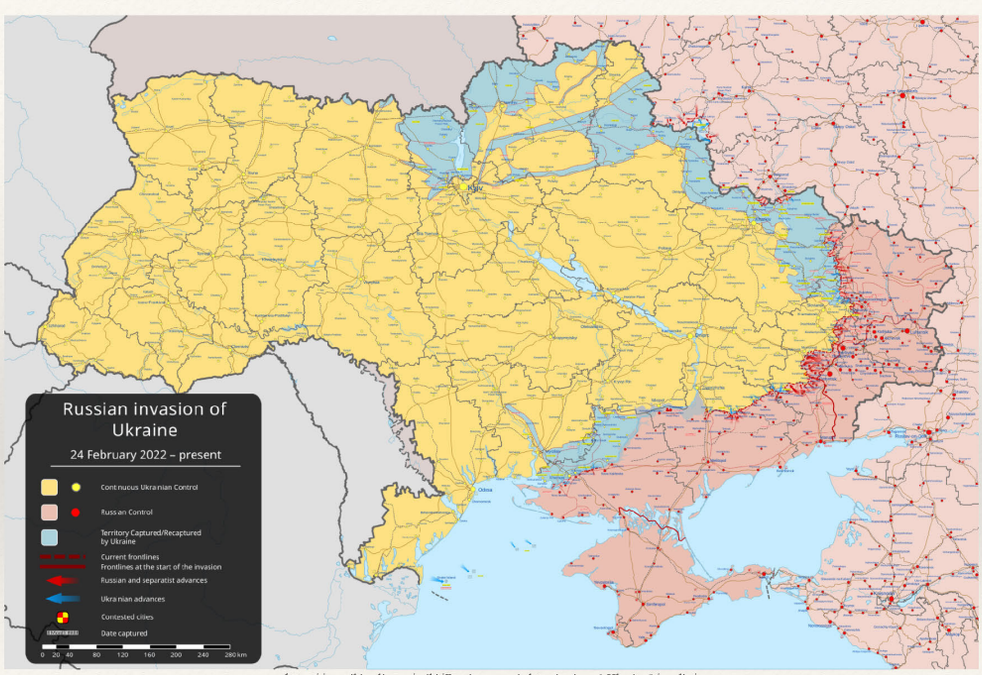
언어와 정체성 1

- 2013~14년 유로마이단 혁명과 크림반도 점령, 동부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로부터의 분리, 단절을 느끼면서 국민 정체성을 다른 어떤 정체성보다 중요시 여기게 됨
- 이러한 국민 정체성은 우크라이나어와 민족문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자유와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성격이 강했음; 이 극적인 변화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돈바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견
- 혁명적 시기를 거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국민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 상징 요소로서 國歌 및 깃발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어를 인정;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어의 상징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바로 일상생활에서 러시아어 사용의 제한에 반대하고 당장 우크라이나어로 전환하지 않았음
- 대부분의 러시아어 사용자들은 우크라이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어떤 민족 문화적 특성보다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요 생활언어를 우크라이나어로 전환할 이유를 찾지 못했음
- 러시아어 사용자들은 러시아어의 선택이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열망하는 포용적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 그러나 이전 제국주의 시기 러시아어가 가졌던 특혜는 여전히 상속되어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사실이 결국 우크라이나어의 약화를 초래
-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지도자들은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소외되고 격리되는 것을 우려하여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강화하는 정책을 기피했지만, 이러한 자유방임적인 접근은 다양한 영역에서 우크라이나어의 불리한 위치를 악화시켰고, 따라서 우크라이나어를 국가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을 발생시킴



https://clearglobal.org/language-data-for-ukraine/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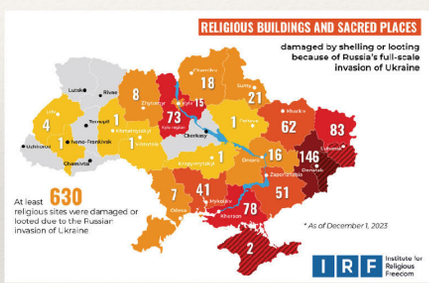
https://en.wikipedia.org/wiki/Russian-occupied_territories_of_Ukraine#/media/File:2022_Russian_invasion_of_Ukraine.svg

언어와 정체성 2

-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어 사용 인구의 감소; 적대국의 언어인 러시아어 사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 제기
-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많았던 동남부 지역이 러시아에 점령되면서 인구의 대이동 발생 —> 기존 러시아어 구사자들은 해외 혹은 다른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이주 —> 러시아어 사용자가 줄고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어 사용자가 늘게됨
- 전쟁 이후 일상생활, 가정에서 우크라이나어 사용 빈도 조사 필요; 이중 언어 현상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주목
- 전쟁 이후 러시아어 사용을 포괄적 민주주의, 즉 자유와 권리의 문제로 생각하던 이들의 사고 변화 조사 필요

종교와 정체성

-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 후 세 가지 주요 종교 종파가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옴: 우크라이나 자치 정교회 (UAOC), 우크라이나 정교회 모스크바 총대주교청(UOC-MP), 1992년 독립 이후 형성된 우크라이나 정교회 키이우 총대주교청 (UOC-KP)
- 2019년 콘스탄티노플의 바르톨로메우 총대주교는 UOC-KP의 독립성을 인정, 러시아의 모스크바 총대주교구의 영향에서 벗어남
- 이후 UOC-KP와 UAOC는 통합 운동을 시작하며 우크라이나 종교 정체성의 통일을 모색
- 이 과정은 종교가 단순히 신앙적 영역을 넘어 정치적 도구로 작용함을 보여줌; 종교가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고 강화하는데 강력한 도구임을 시사
- 우크라이나의 동부전쟁과 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내 UOC-MP 소속 신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UOC-KP 혹은 그리스 가톨릭 신자 수가 빠르게 증가; 이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 형성에 기여



https://www.ukrainianworldcongress.org/russian-church-declares-war-against-ukraine-holy/

젤렌스키 대통령의 수사학과 정체성

- 2022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분석, 국가 정체성 형성과 리더 중심의 수사학 간의 관계 탐구
- 124건의 연설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젤렌스키의 수사학은 역경 속에서 긍정적 정서를 강조하며 통일된 국가 정체성을 육성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줌
- 올가 오누크와 헨리 헤일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언어와 종교보다 국가적 의무와 시민적 가치, 우크라이나의 고유성과 일상적 경험을 강조; 그의 연설은 우크라이나의 다양성과 공유된 경험, 시민의 의무 등을 강조하며, 국가적 응집력과 희망을 불러일으킴: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땅,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영토보존과 안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 전쟁 상황에서 긍정적인 리더십 수사는 국가적 통합을 촉진하고,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됨
- 젤렌스키의 리더십이 전쟁 상황에서 국가 정체성 재구성에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

시민적 소속감, 시민의식, 정치의식과 정체성

-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강한 시민적 소속감과 민족적 자부심 부여; 국가 방어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적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됨
-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조사 응답자의 59%가 우크라이나 국적에 자부심을 느낀 반면, 2022년에는 82%로 증가
- 국가에 대한 실질적 기여(세금 납부, 군 복무 등)를 통해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함
- 이번 전쟁은 국민 대다수의 공통된 정서로 "반러시아주의"를 확대했으며, "유럽연합가입" 혹은 "나토가입"의 정치적 입장으로 선회시킴
-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OUN 및 UPA)에 대한 긍정적 평가; 2014년 OUN/UPA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32.6%, 2022년에는 68.6%로 급증; 과거 민족주의 투쟁은 현재 러시아 침략에 맞서는 저항 서사와 연결되어 국민 정체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됨
- 전쟁은 과거의 민족주의 서사를 현재의 국가 방어와 결합하여, 이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결론

-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동부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야기
- 사회문화적 요인인 언어, 종교에 있어 통일성 증가
- 과거 논란이 되었던 OUN, UPA에 대한 역사 인식 변화
- 전쟁을 함께 경험하며 공동의 위기의식과 집단 정체성 형성
-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의 주요한 타자로 인식, 반러시아 감정의 확산과 유럽화에 대한 공동의 정치의식 확산
- 자유, 민주주의, 영토보존의 원칙과 시민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체험
- 국제협력과 디아스포라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 시스템 경험
- Diia와 같은 디지털환경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강화 및 사회 통합
- 이번 전쟁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과제였던 과거 청산, 즉 탈러시아화, 탈소비에트화, 내부적 분열을 청산하고 새로운 통일된 국가 정체성의 형성을 앞당기는 기회 제공
- 이는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을 위해 겪어야 할 과정

참고문헌

- 홍석우 (2022) "문제적 관계의 우크라이나 언어와 정체성.” 동유럽발칸연구 46(1).
- Brantly, Aaron F. (2023) “Foreged in the Fires of War: The Rise of a New Plual-Ukrainian Identity.” *ASN Annual World Convention 2023*.
- Kulyk, V. (2024) “National Identity in Time of War: Ukraine after the Russian Aggression’s of 2014 and 2022.” Problems of Post-Communism 71(4).
- Kulyk, V. (2016) “Language and identity in Ukraine after Euromaidan.” *Thesis Eleven* 136 (1).
- Wilson, Andrew (2023) “Ukraine at war: Baseline identity and social construction.” Nations and Nationalism 30(1).